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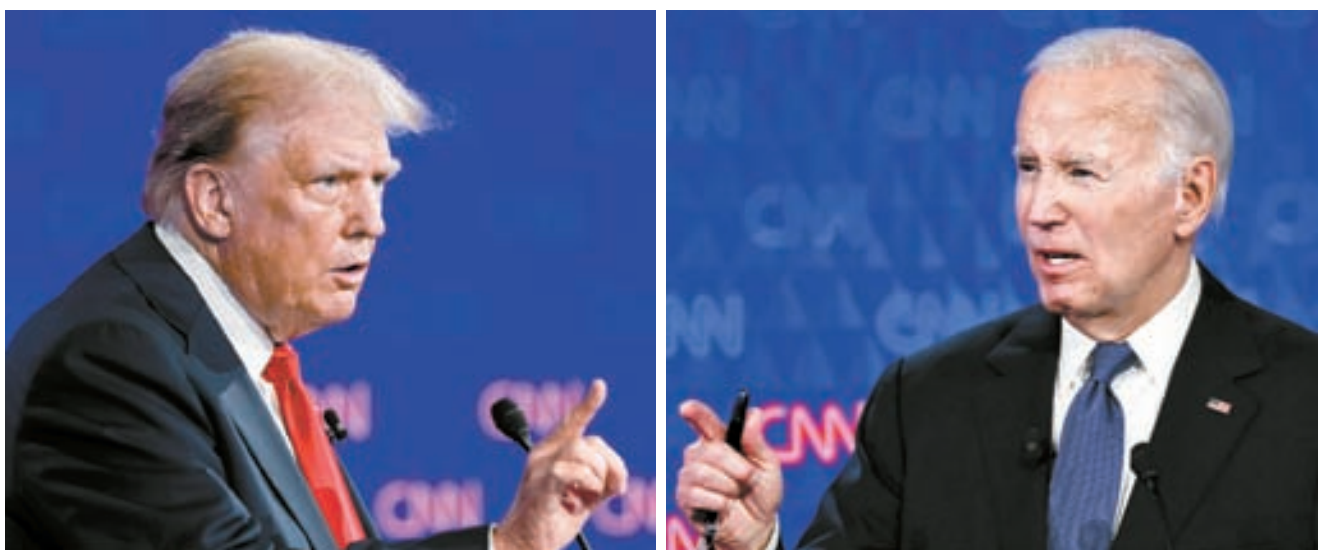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융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56호
Saturday, June 29, 2024 A

첫 TV토론 끝나자, 바이든 후보 교체론

대선 4년 만에 리턴매치 대격돌
직후 여론조사 "트럼프 승리" 67%
민주당 안팎 "늦기 전에 대타 찾아야"
바이든 "우리가 잘해" 사퇴론 일축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다. [AP·AFP=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TV토론은 대개 '소문난 잔치'다. 도입 초기엔 결정적이었으나 최근엔 제한적이 됐다. 익숙한 포맷이 되면서 후보들이 엇비슷한 평가를 받곤 했다.

27일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은 달랐다. 완벽한 승자와 완벽한 패자를 낳았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이 전자라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81) 대통령이 후자였다.

트럼프는 야금야금 후벼팠고 바이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버럭했다. 트럼프의 어조엔 여유가 느껴졌지만, 바이든의 쉰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2016년 대선 토론 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정밀 타격'에 허둥지둥하고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의 발언 중 끼어 들어가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던 트럼프는 이날 없었다. 4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비교적 차분하게 주장을 펴는 등 한결 노련해진 모습이었다. 여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쏟아냈지만, 타격은 크지 않았다.

반면 '변칙왕' 트럼프에 '모범생' 바이든은 허를 찔린 듯 시종 힘겹게 싸우는 양상이었다. 낙태권 이슈 등 자신에 유리한 주제에서도 힘을 내지 못했다. 잦은 기침과 말 더듬, 생각의 흐름을 잃은 듯한 표정을 내보였다. 이 때문에 '고령' 이슈만 부각됐다.

버락 오마바의 선거전략가였던 데이비드 플러프는 "둘이 (세 살이 아닌) 30살은 차이나 보였다"며 "데프콘 1(동원령이 선포된 전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토론에서 이겼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를 꼽은 응답자가 67%로 바이든을 꼽은 응답자(33%)에 비해 두 배 많았다.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다. 후보교체론까지 나온다. 4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대만계 기업인 앤드루 양은 소셜미디어 X에 "민주당은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은) 바이든에게 '재난'"이라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기부자인 마크 부엘은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시간이 있느냐"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민주당의 베테랑 전략가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에게 물러나라는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은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토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감기와 싸우고 있다. 목이 아프다"며 "우리가 잘했다"고 말했다.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토론 뒤 "(바이든이) 시작은 늦었지만, 마무리는 강했다"고 답했다.

영국 BBC방송은 "바이든이 물러난다 해도 바이든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가란 또 다른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첫 TV토론의 참패로 바이든과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

애틀랜타=김형구·강태화 특파원

» 관계기사 8,9면

신분도용 피해자 세금환급 2년 걸린다

조사 케이스 50만건 적체
늑장 행정 처리 비난 거세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IRS 측의 행정처리가 늦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신분도용 범죄다.

NTA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세금환급을 노리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빠르게 세금보고를 하는 수법을 쓴다. 이후 신분을 도용 당했는지 모르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 IRS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 IRS는 두 번째 세금환급을 하지 않고 케이스를 조사한다. 이 조사과정이 끝나고 환급을 받기까지의 평균 22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NTA의 지적이다.

납세자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세금 환급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환급을 받아 해결하려 했던 미납 의료비나 카드빚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재정난으로 개인 대출도 받아야 하는 손해를 겪기도 했다. 신분도용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NTA는 현재 조사 중인 신분도용 케이스가 50만건에 달하며 처리 기간 또한 전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IRS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적체된 신분도용 케이스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IRS가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이런 지적에 대해 "신분도용 케이스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요 케이스 처리 인원을 증원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NTA는 일반적인 세금보고의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기간 극도로 느려진 처리 속도가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납세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IRS는 행정처리가 늦어 적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80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비판은 더 거셌다. IRS는 7조 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김홍일 탄핵’ 발의되자 …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나섰다

〈방통위원장〉 〈KBS·MBC·EBS〉

방통위, 이사 선임계획 전격 의결

MBC방문진·KBS 28일부터 공모
김 위원장 “현행법 따른 당연한 책무”
여야, 방통위 청사 찾아 맞불 회견
야 “금주 의결 일정 없다더니 거짓말”
여 “MBC 지키기 위한 습관성 탄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 의결을 위한 제32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28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공모를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BS 이사는 다음 달 12~25일에 걸쳐 공모한다. 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진 이사진 9명은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고, KBS 이사 11명은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EBS 이사진 9명은 9월 14일이 임기 만료일이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회의 계획이 없었으나, 전날(27일) 국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이 김 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기습 발의하자 긴급하게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민주당은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심판 전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방통위는 1인 체제(이상인 부위원장)가 돼 안건 의사정족수(2인 이상)를 채울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며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 4~5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습 탄핵안을 처리하는 배경엔 “방통위 손발을 묶어 현재 친야 성향 이사의 임기를 자동연장 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여권에선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해 직무정지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MBC에 대한 지배구조를 지금 (친야 성향 다수) 체제로 갖고 가겠다는 의도”라며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야당 뜻대로 정국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회의 소집을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 회의가 열리기 전 정부 과천청사 앞을 찾아 김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국회에 출석해서 이번 주 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일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거짓말한 건가”라고 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도 예고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과방위원 등도 정부 과천 청사를 찾아 맞불 회견을 벌였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편파왜곡 보도를 쏟아낸 MBC 이사진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 폭거”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임명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동관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탄핵을 밀어붙이더니 또다시 못된 버릇인 습관성 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4개의 재판 이재명, 10월 첫 1심 선고 가능성

전준위, 이 전 대표 추대 논의 미뤄
이인영 불출마, 김두관은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려면 본 경선은 물론 예비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도록 했다. 이전엔 본 경선에서만 권리당원의 의사를 물었다.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중도 높였다. 권리당원에게 이중 장치의 보다 강한 발언권을 부여한 셈이다.

8·18 전당대회를 앞둔 당 전당대회 준비위(위원장 이춘석 의원)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을 의결했다. 특히 본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종전 40%(2022년 전당대회)에서 56%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신 대의원 투표비율은 30%에서 절반 이하인 14%로 줄였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의 합(70%)을 제외한 나머지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한다. 이로써 권리당원의 지지가 있어야 당선되는 구조가 됐다.

1차 관문 격인 예비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준위는 최고위원 예비경선룰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을 확정했다. 종전에는 중앙위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러왔다.

중앙위원회는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및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등 800명 이하로 구성된 전당대회 수임기관인데, 이들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똑같이 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해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게 된다.

전준위는 대표 선거 예비경선룰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여론조사 25%’로 확정했다.

종전엔 ‘중앙위원 70%, 여론조사 30%’였다. 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진행해 3명을 추려 본 투표를 진행한다. 대표·최고위원 예비선거는 다음 달 14일에 치러진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 대비해 전준위는 이날 추대 혹은 찬반투표 여부를 정하기로 했지만, 결정을 미뤘다. “출마 가능성이 있는 다른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정을호 전준위 대변인)는 이유다. 일부에선 “전준위가 추대 여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1인 출마’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준위는 일단 7월 초 후보등록을 마친 뒤 이 전 대표 단독 추대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대 룰이 정해지면서 차기 지도부의 친명 일색 기류는 더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이춘석 위원장조차 이날 KBS라디오에서 “(차기 대표는) 이 전 대표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이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개딸’ 지지가 없으면 애초에 출마조차 어려운 전당대회가 됐다”고 토로했다.

대항마로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 가운데 일각에선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중진 의원은 “만약 김 전 의원이 출마해도 따르는 세력이 적어 결국은 ‘이재명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8일 열린 이 전 대표 재판에서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과 이 전 대표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와의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만일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강보현·최서인 기자

워싱턴 날씨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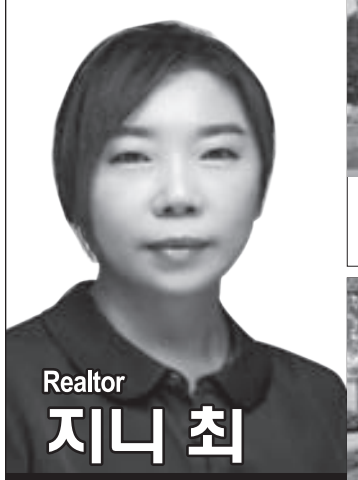
6월 29일(토) 91~80

30일(일)	95~69	3일(수)	93~78
1일(월)	82~67	4일(목)	96~78
2일(화)	87~70	5일(금)	93~7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REALTY 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SOLD Rockville $280,000 콘도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

UNDER CONTRACT Elkridge $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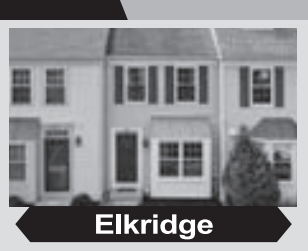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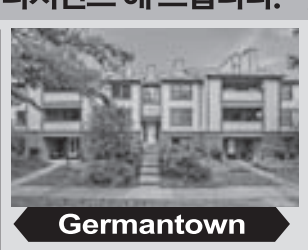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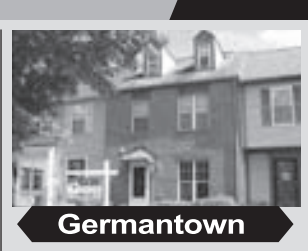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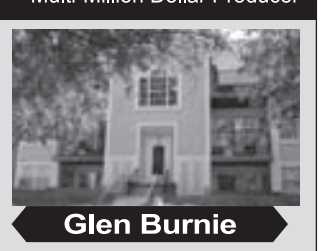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COMING SOON Rockville 싱글홈, 방5, 화2, 차고2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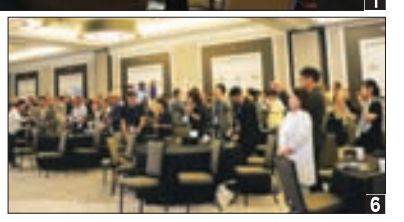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나라 이뤄가는 것"

북미주 KCBMC 전국 대회 성황

제 27차 북미주 한인 기독실업인회(이하 북미주 KCBMC) 전국대회가 27일,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메리어트 페어뷰 파크 호텔에서 개막했다.

500여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열린 이번 행사는 오전10시부터 타임 매니지먼트와 세금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초빙한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가 오후까지 이어지다 딥앤와이드 파운데이션(대표 성보영 목사)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본격 시작됐다. 박상근 증경회장이 개회 기도 후, 한기덕 15대 북미주 KCBMC 총연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1 6 제27차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KCBMC) 전국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2 3 4 류응렬 목사, 한기덕 KCBMC 총연회장, 강고은 준비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5 성보영 목사와 딥앤와이드 파운데이션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다.

한 회장은 "천국 복음의 은혜가 있는 이번 대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면서 "KCBMC 안에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때에 현세대에서 차세대로 이어지며 계속되는 Life-on-Life 사역의 열매 이야기가 펼쳐지고 예수님이 기뻐 쓰시는 북미주 KCBMC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고은 준비위원장은 "이번 북미주 대회 주제인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역의 이야기'는 영화 '미나리'를 연상케 한다"면서 "1세대가 번성을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뿌리 역할을 해주었기에 2세대가 더욱 더 연합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 교체가 아닌 모든 세대가 단합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기도와 정성, 섬김으로 열심히 준비한 행사에 믿음으로 하나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호동 DC지회 총무가 대회 안내를 했으며, 북미주 KCBMC 폴 현 사무총장이 내빈소개를 이어갔다.

판소리 등 특별공연이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며 대회 열기는 무르익어 갔다.

'LOL 열매 이야기' 순서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의 생생한 간증으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설교를 담당한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류응렬 목사는 사도행전 4장12절 말씀으로 '예수,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그 이름'의 복음 메세지를 전했다.

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심장에 새기는 영적 창조적 소수자들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은 전해야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행사에는 홉킨스 회장이 강사로 나서 'Life-on-Life Discipleship The Call, The Cost, and the Commitment'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이 열렸으며, 29일 KCBMC 정기총회를 통한 신임 회장 선출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끝으로 대회는 성대한 막을 내린다.

김윤미 기자

하버드대, 세계 최우수 대학 1위

US뉴스, 대학 랭킹 발표
스탠포드 3위·버클리 5위

하버드대학교가 전 세계 최우수 대학 1위로 선정됐다.

US뉴스&월드리포트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최우수 대학' 순위에 따르면 하버드대와 MIT, 스탠포드대가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UC 버클리가 5위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학교(UW)가 7위에 올랐다.

뉴욕주에서는 컬럼비아대가 세계 랭킹 9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업스테이트 뉴욕 이타카의 코넬대가 19위, 뉴욕시의 뉴욕대(NYU)가 32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뉴욕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로체스터대가 199위, 뉴욕주립 스토니브룩대가 227위를 기록했다.

뉴저지주에서는 프린스턴대가 18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럿거스대 뉴브런즈윅 캠퍼스가 148위 등에 올랐다. 커네티컷 뉴헤이븐에 위치한 예일대는 10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최우수 대학 1위부터 15위까지는 모두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이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칭화대가 1위에 올랐으며, 싱가포르국립대와 난양대가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세종대가 한국의 톱3로 꼽혔으나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각각 135위, 205위, 241위로 나타났다.

이번 순위 조사에서 US뉴스&월드리포트는 미국의 198개 대학과 영국의 98개 대학, 중국의 422개 대학 등 100개 이상 국가에서 2250개 대학을 대상으로 글로벌 연구 평판, 지역적 연구 실적 평판, 출판물, 가장 많이 인용된 1%에 포함된 논문의 수, 국제협력 정도 등 총 13가지 항목을 차등 배점해 그 점수의 총합계로 순위를 매겼다.

윤지혜 기자

2024년 전세계 최우수 대학 순위

(전세계)순위	학교
1	하버드
2	MIT
3	스탠포드
5	UC 버클리
7	워싱턴대학교(UW)
9	컬럼비아
10	예일
11	UCLA
13	존스홉킨스
14	펜실베이니아
15	UC 샌프란시스코
18	프린스턴
19	코넬
19	미시간

자료: US뉴스&월드리포트

"여덟 살 골프 신동 탄생?"

여덟 살 한인 소녀가 버지니아 어린이 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주인공은 전하나 양(미국명 스텔라).

전 양은 지난 6월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미 어린이 버지니아 주 지역 골프대회에서 '여아 8세 부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쥤다. 전하나 양의 우승은 처음이 아니다. 2024년 봄 시즌 5개의 토너먼트를 돌며 진행된 전미 어린이 골프대회 메릴랜드 지역 투어 대회에서도 같은 부문 '투어 챔피언'에 등극했다. 또한 오빠 전하율(11, 미국명 네이선) 군과 한 팀으로 지난 17일 애쉬번에서 열린 PGA 주니어 리그에도 참석해 활약했다.

버지니아 지역 여덟살 소녀 중에서 따라올 수 없는 '골프 신동'의 면모를 보이는 전하나 양은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 우태창 회장의 외손녀다.

박세용 기자

전하나 양이 아버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제임스 비어드상 한인 셰프

직원들 노조결성 놓고 갈등

미네소타 앤 김씨 킴스 식당
"생계 유지 어려워" 단합 결정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한 한인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당이 직원 노조 결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스타트리뷴은 한인 셰프 앤 김(사진)씨가 남편과 운영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지역의 킴스 식당이 최근 직원 노조 결성에 나서면서 업주와 직원 간 긴장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김씨는 이 지역에서 킴스, 영조니, 피제리아롤라, 헬로 피자 등이 포함된 레스토랑 그룹 베스탈리아 호스피탈리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비어드상 수상 등으로 이름을 알린 김씨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생계유지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28일 김씨 부부에게 노조 결성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은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27일 투표한 결과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

스타트리뷴은 내부 직원을 인용해 김씨가 노조 결성 방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그는 노조 없이도 직원들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씨는 직원들에게 노조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을 독려하고 있다.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들과 이들이 소속될 예정인 유나이티드 히어로컬 17 노조 측은 김씨 부부의 방해 공작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나이티드 히어로컬17은 성명을 통해 "김씨의 레스토랑은 미니애폴리스의 최고 레스토랑"이라며 "김씨가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조 결성을 막는 나쁜 전술을 펼치고 있다.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형재 기자

알래스카 한인 '북한에 밀수' 기소

북한에 사탕·딱지 밀수 적발
법무부 제재회피 등 24건 혐의
유죄입증 시 최소 100년형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한인 2명이 북한에 밀수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26일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한인 2명을 밀수, 돈세탁, 제재 회피 등 총 24건의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00년 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알래스카 연방 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북한에 5달러 상당의 PEZ 캔디와 어린이 장난감 종이 딱지(Pogs)를 보내려다 적발됐다. 기소된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미국인 시민권자다.

레인 터커 알래스카 연방 검찰청장은 "우리는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외국 출신의 이들 미국인은 연방법을 위반해 북한 정권에 중요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대규모 국제 범죄 음모를 무너뜨리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알래스카 연방 검찰청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반(DEA),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등이 합동으로 이들의 거주지를 급습해 물품을 압류했다. 이번 급습 작전에는 50명 이상의 연방 요원과 다수의 K-9 유닛, 3대의 장갑차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 요원들은 5달러 상당의 PEZ 캔디와 디스펜서, 12.50달러 상당의 딱지(Pogs)를 압수했지만 살상 무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래스카 지역 신문인 알래스카 랜드마인은 26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연방 수사팀이 한인 거주지에서 압류한 사탕과 딱지의 역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알래스카 연방 검찰청의 레이건 짐머맨 대변인은 "누가 알겠나. 교활한 북한 정권이 우리 미국산 사탕과 어린이 장난감으로 무엇을 만들지. 어쩌면 폭탄일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신문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 중 한 명이 "가족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 그저 조카들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보내려고 했을 뿐이다. 그곳에서는 삶은 매우 힘들다. 우리가 이런 물건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연방 정부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전해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Meg' 리브랜딩 프로젝트 리더 박홍경 씨

'혁신적인 제품 창작자' 평가 받으며 '차세대 패션 업계 리더' 꿈꾼다

박홍경 씨는 뉴욕의 명문 공립 예술 대학교인 FIT에서 비즈니스 전공을 하여 현재 뉴욕에서 제품 창작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혁신적인 제품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뉴욕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영감이 되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2022년, FIT에서 창의적인 토트백 프린트로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The Loop for Good' 캠페인이 열렸다. 이 캠페인은 버팔로 익스체인치, Arch&Hook 등 유명 패션 업체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박홍경 씨는 팬톤 컬러칩에서 영감을 받았아 더러운 미래 바다 색깔을 프린트 디자인으로 시각화한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Z세대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들이 환경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오염로 인해 바다의 푸르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인 'Blue Should Be Blue'라는 메시지를 프린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제품 창조자의 꿈을 품었던 박홍경 씨는 남들과는 다른 창의성이 돋보인 이 작품으로 업계 사람들의 영감이 됐고,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 캠페인에 참가하도록 격려하였다. 제품 창조에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창의성을 촉진하여 제품의 품질과 혁신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며, 박홍경 씨는 이를 이루어냈다.

박홍경 씨(왼쪽 사진)와 그가 디자인한 'Loop for Good' 토트백 프린트 출품작

박홍경 씨는 현재 코스메틱 브랜드인 'Meg'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다. 'Meg'은 고객층들에게 마린 컴플렉스를 활용한 스킨케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브랜드이며, 2018년도 NYFW 기간동안 한국무역진흥공사와 뉴욕무역진흥공사가 주최한 연중 행사에서 The Selects와의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경험이 있다.

그녀의 트렌드 예측 능력, 소비자 심리 이해도, 그리고 디자인 감각은 Meg의 '영원한 바다'를 테마로 한 스킨케어 라인 및 리브랜딩의 핵심 요소였으며, 그녀는 컬렉션 주제, 로고 디자인, 용기 선택, 전성분 선택, 패키징 디자인 등 모든 스텝을 주도했다. 이 컬렉션은 베리추 출물이 함유된 클렌징밤, 각질제거와 세안이 가능한 팩클렌저, 팩으로도 쓰이는 에센스 패드, 라이트한 오일 세럼, 고보습 수분크림, 콜라겐 립밤, 라이트한 선크림, 보송한 핸드크림으로 구성되어있다.

테마와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트렌드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 성분을 찾는 것은 어려운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도록 전제품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피부 친화적인 마린 컴플렉스와 해양수를 함유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박홍경은 이를 이루어내었다. 제품의 해양 성분은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을 공급해주며, 소비자들은 피부의 건강 촉진과 빛나는 피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컬렉션은 2024년 기준 10만달러의 오더 수량으로 Meg의 핵심적인 발판이 될것이라 기대된다.

이 성공적인 결과는 제품 창작자로서 그녀의 전문성, 창의력,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성취로,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기술을 통합하는 능력에 기인했다. Meg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그녀의 주도 하에 2024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며, Meg의 성공적인 런칭을 기약하며 그녀는 제품 창작의 모든 과정을 이끌 것이다.

추후 2027년까지 미국에서 유명한 대형 바이어의 자체 브랜드의 제품 창출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리더로 투입될 예정이며, 미래가 기대되는 제품 창작자로서 혁신적인 신제품들로 브랜드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으리라 평가된다.

박세용 기자

종합비타민 "사망 확률 4% 더 높다"

현대인 필수품의 충격적 결과
비타민·미네랄 효능도 있지만
식단으로 섭취하는게 훨씬 나아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먹는 것이 건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연구소(NCI)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최근 "수명 연장을 위해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지난 26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를 위해 NCI의 에리카 로프트필드 박사와 동료들은 성인 20여년간 누적된 약 4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의 중간 나이(모든 참가자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 평균 나이와는 다른 개념)는 61.5세, 만성 질환 병력이 없는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그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었을 때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연구 기간 초기 참가자 39만 여명 중 약 16만5000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건강한 사람들은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구 기간 사망할 확률이 되려 4% 더 높았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종합 비타민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움을 반영하거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그러면서 "비타민·미네랄 같은 영양 보충제의 유행에 동참해 돈을 낭비하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연구는 기존에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논문과 함께 게재된 비평(논문 검토)의 공동 저자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대 교수 닐 바나드 박사는 "비타민이 특정 경우에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선원들은 비타민 C로 괴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E, 그리고 아연은 시력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노화 관련 황반변성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학 전문가인 제이드 A.코번 박사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많은 종합 비타민제가 비싸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지출"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포함해 필요한 영양 성분을 식단에서 섭취하라고 입을 모았다. 코번 박사는 "채소와 통곡물 또는 콩류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 소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수영 기자

짓눌린 사실 경찰 보고서에 없었다

조나단 정 초동수사 부실
사망원인 재조사 필요성 대두
"누르고 수갑채우니 구토" 증언

[사진=변호인단 제공]

지난해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보안 요원 다섯 명에게 강압적으로 제압당한 뒤 숨진 조나단 정(당시 45세)씨〈본지 6월15일자 A-1면〉사건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롱비치 법원에서는 조나단 정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인디라 캐머런 뱅크스 변호사는 "사건 당시 보안 요원이 무릎으로 정씨의 등을 누르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보고서엔 없다"며 "당시 정씨의 사인에 대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LA카운티검시소는 정씨의 사망 원인을 당초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죽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초동 수사의 부실함이 드러나면서 정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재조사의 필요성까지 대두하고 있다.

캐머런 변호사는 "이번 민사 재판과 별개로 검찰이 반드시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한 개인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형사 수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월 LA카운티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실제 검찰도 재판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LA카운티검찰 산하 아시아태평양 자문 위원회 에스더 임 위원장은 "카운티 검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지켜보는 중"이라며 "자문위원회도 검찰에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전달한 상태이며 검찰도 민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사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고 측은 바이시클카지노 측의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단에 1억3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보안 요원 중 한명인 안토니오 허난데즈가 지난 18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허난데즈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배심원단에게 "가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난데즈는 보안요원들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난데즈는 "한 보안요원이 엎어진 정씨에 대해 다리를 뒤로 젖힌 후 눌렀고 다른 요원이 팔을 등 뒤로 잡아당긴 뒤 수갑을 채웠다"며 "그러자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구토를 시작했으며 정씨를 뒤집었을 때 맥박은 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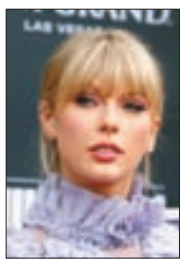
정씨의 아버지 정정식(82)씨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아들이 보안 요원에 의해 쫓기다가 질식사하는 CCTV 영상을 봤다. 현재 재판에 매일 참석중인 정씨는 지난 26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너무 충격적"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24일 오후 3시 57분쯤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카지노 보안 요원 5명은 퇴장 명령을 받고 저항 없이 카지노를 떠나던 비무장 상태의 조나단 정씨를 수갑을 채운 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열 기자

"스위프트, 1년치 음식값 내줬다"

영국 푸드뱅크에 통큰 기부



유럽에서 콘서트 투어 중인 최정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사진)가 영국 도시의 푸드뱅크에 잇달아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푸드뱅크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다.

26일 현지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위프트가 지난 18일 공연한 웨일스 카디프 지역의 푸드뱅크는 정확한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창립 이후 개인 기부로는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레이철 빅스 대표는 "음식과 필요한 물품으로 채운 트럭을 살 것"이라며 "1200명에게 하루 3끼씩 사흘치, 즉 1만800끼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스위프트는 이에 앞서 사흘간 공연한 리버풀에서도 나눔을 실천했다. 11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세인트앤드루스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스위프트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값 1년치를 내줬다고 보면 된다"며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푸드 프로젝트도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줄 만큼 기부받았다"고 말했다.

세계 투어 중인 스위프트는 이번 달 영국 여러 도시에서 공연했으며 다음 달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를 돌고 난 뒤 8월 런던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월그린, 상당수 폐점 전망

8600개 매장 중 25% 조사

대형약국 체인 월그린이 국내 약 2150개 매장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27일 CBS뉴스에 따르면, 월그린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국내 8600개의 매장 중 약 25%(2100여개)에 대한 매출을 확인해서 폐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그린의 팀 웬트워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는 회사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하은 기자

대선토론 다음날…대법원, 의회폭동 참가자 '과잉기소' 판결

보수 5·진보 1명 '다수 의견'

연방 대법원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격렬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날인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은 1·6사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찬성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반대편에 섰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단순히 의사당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며, 특검이 해당 의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기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6 사태에 관한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심리하고 있어 면책 인정 여부가 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해 최소 수백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국회의사당 난입 1.6 사태 [AP 연합뉴스]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추인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연방 의회로 대거 진입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WP에 따르면 1·6사태 직후 350명 이상 시위 참여대가 의사 진행 방해로 기소됐으며, 현재 약 27명이 해당 혐의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110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체 기소 1천400건 가운데 80% 가량은 의사당 공격 및 연방 재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폭동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상징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매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로 중대한 연방 법규 적용에 제한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시점상 공교롭게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날 내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무기력한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 민주당 안팎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의 편을 들어줬다"면서 "하급 법원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상당수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으며, 해당 혐의로 기소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시장, 결국 중국인 맞았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 '중국인 간첩' 혐의를 받는 한 소도시 시장이 중국인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35·여·사진) 시장 지문이 중국인 여성 궈화핑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13세 때인 2003년 1월 중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특별투자거주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궈화핑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궈 시장 지문과 대조하도록 NBI에 요청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궈화핑이 '앨리스 궈'라는 이름을 한 필리핀인으로부터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가 필리핀인으로 가장한 것은 밤반시 유권자와 정부 기관, 모든 필리핀인을 크게 모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궈 시장과 궈화핑 지문이 일치하는 것은 궈 시장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범한 농촌 소도시인 밤반시 시장으로 타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궈 시장은 지난 3월 당국이 시장실 바로 뒤에 위치한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 이곳이 실제로는 사람 수백 명을 가둬놓고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행을 시키는 소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곳에서 중국인 202명과 다른 외국인 73명을 포함해 감금된 약 700명을 구출했다.

조사 결과 궈 시장은 문제의 업장이 있는 약 7만9천㎡ 부지의 절반과 헬기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궈 시장의 출신 배경과 경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실은 중국인이 아니냐', '중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주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궈 시장과 이 업소 설립자 등 14명을 밀입국 알선·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PAOCC의 공소장은 궈 시장이 궈화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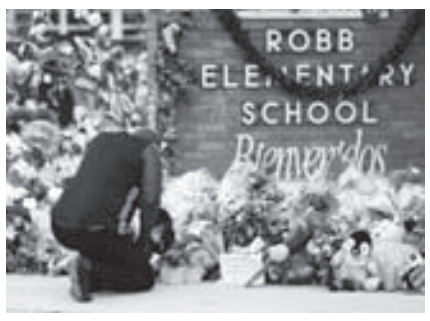
유밸디 총격 늑장대응 경찰 2명 기소…2년만에 첫 재판

2022년 5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늑장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28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유밸디 카운티 대배심은 이 총격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직 학교 경찰서장 피트 아레돈도와 학교 경찰관 에이드리언 곤살레스를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아레돈도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 10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전날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곧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유밸디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 사건 당시 아레돈도가 총소리를 듣고 교실 안에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는 모습.

교사와 아이들이 총에 맞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8세 총격범을 곧바로 제압하지 않고 협상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레돈도는 경찰 특수기동대(SWAT)를 요청하고, 현장에 있던 초기 대응 경찰관들에게는 건물을 떠나라고 명령해 총격범 제압을 지연시켰다.

전직 학교 경찰관 곤살레스에 대한 기소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미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33분에 돌격소총 AR-15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온 총격범은 총격을 시작한 지 77분 만인 낮 12시 50분에 사살됐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소속된 요원 총 376명이 출동해 있었지만, 총격범이 교사와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총격을 가하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총격범을 곧바로 제압하지 않고 우왕좌왕한 경찰들이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고 비판하며 경찰 책임자 처벌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계속 지연됐고, 아레돈도와 곤살레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 기소 대상이 됐다.

5월 PCE 물가 2.6%↑…금리인하 기대 높일듯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5월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는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보합에 머물렀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다.

대표지수와 근원 지수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근원 PCE 가격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월 이후 4월까지 3개월 연속 2.8%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근원 가격지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더 잘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주요업무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취업 비자 (H1-B)
◆ 종교 비자 (R1)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투자/교역 비자 (E1/E2)

◆ 학생 비자 (F1)
◆ 주재원 비자 (L1)
◆ 시민권 신청 (N-400)
◆ 가족 초청 이민
◆ 결혼 이민
◆ 추방유예 (DACA)

◆ 사면준비
◆ 이민국 인터뷰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촌 길건너편)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 HomeAdvisor

LENNOX · Carrier ·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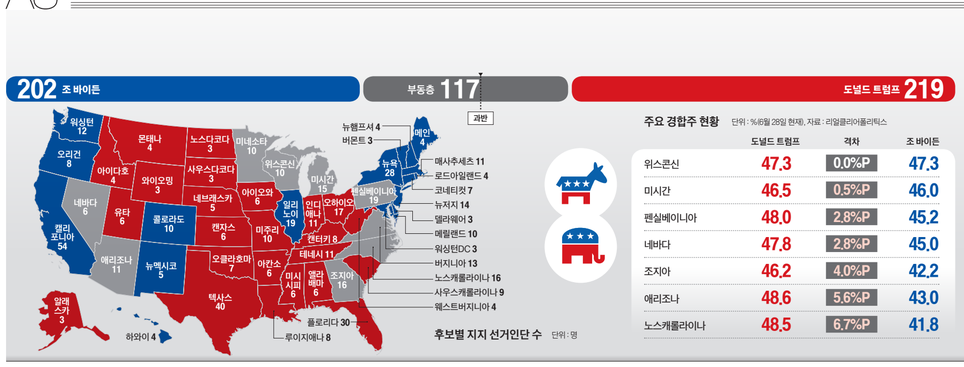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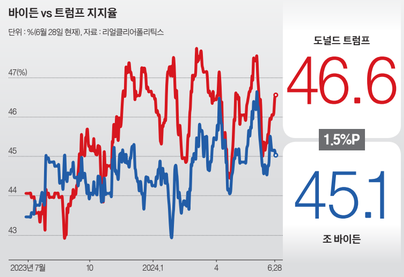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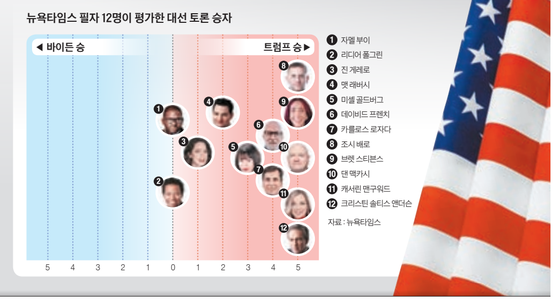


후보별 지지 선거인단 수 단위 : 명

주요 경합주 현황 단위 : %/6월 28일 현재), 자료 : 리얼클리어폴리틱스

	도널드 트럼프	격차	조 바이든
위스콘신	47.3	0.0%P	47.3
미시간	46.5	0.5%P	46.0
펜실베이니아	48.0	2.8%P	45.2
네바다	47.8	2.8%P	45.0
조지아	46.2	4.0%P	42.2
애리조나	48.6	5.6%P	43.0
노스캐롤라이나	48.5	6.7%P	41.8





시작부터 목 잠긴 82세 바이든 … 네 살 어린 트럼프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90분 설전, 악수조차 안하고 시작

바이든, 종이에 연신 무언가 적어
트럼프가 사망한 장남 언급하자
"당신이 멍청이이자 패배자" 욕설

트럼프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유지
예상과 달리 토론 내내 침착한 모습
의회 폭동 등 불리한 주제 피해가

"최악(worst)", "거짓말쟁이(liar)", "멍청이(sucker)", "패배자(looser)"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90분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를 이렇게 불렀다. 이날 CNN 스튜디오에 입장한 두 사람은 악수도 나누지 않고 단상에 섰다.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1주일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토론을 준비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려던 경제 이슈였다.

그러나 답변이 시작되자마자 취재진이 모인 프레스룸에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미 완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82세로 고령인 바이든의 쉰 목소리를 확인한 네 살 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즉각 주제를 인플레이션과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 등으로 돌려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단상 위 백지 메모지에 연신 무언가를 적었다. 그 바람에 두 후보를 절반씩 분할해 송출된 TV 화면 속 바이든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트럼프의 호통을 들으며 90분 내내 반성하듯 고개를 숙인 듯한 모습이 됐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모지와 펜에 손을 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TV에 노출된 트럼프는 꼿꼿하게 정면을 응시하다가 바이든의 어눌한 말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식이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낙태·불법 이민·외교·민주주의·기후변화·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모든 주제에서 치열하게 격돌했다. [AFP=연합뉴스]

토론이 이어질수록 바이든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한층 잠겼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8번에 걸쳐 마른 가래를 삼켰다.

코너에 몰린 바이든은 주장과 논거를 순서와 번호를 매겨 제시하려 했지만, 이 역시 잘 되지 않았다. '첫째'로 시작한 발언은 '둘째', '셋째'를 기억하려는 듯 여러 번 중단됐고, '첫째'라고 말하고 다음에도 다시 '첫째'라고 하는 일도 생겼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는 토론 내내 침착한 모습이었다. 반면 바이든은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를 문제 삼은 트럼프에 반박하는 중 돌연 "내 아들은 이라크에 파병 갔다가 암 4기 판정을 받고 돌아왔다"며 "내 아들이 패배자나 멍청이가 아니라, 당신(트럼프)이 멍청이이자 패배자"라고 했다. 2015년 뇌암으로 사망한 장남 보 바이든의 사례를 꺼낸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그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니, 내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는 불리한 주제엔 아예 답변을 회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낙태권과 복지 이슈 그리고 대선 불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앞에서 못다 한 얘기를 마무리 짓겠다"며 주어진 시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는 데 썼다. 트럼프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의회 폭동 사건'에 대해선 참다 못한 사회자가 "'네' 또는 '아니요'로 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끝까지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건강 문제가 토론 막판에 배치된 것도 바이든에게 악재가 됐다. 나이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완전히 잠겨 있었고, 바이든은 침을 힘들게 삼키고서야 "삼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설득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반면 트럼프는 "나는 두 번이나 (골프) 클럽 챔피언십에서 승리했지만, 그(바이든)은 골프공을 50야드도 못 친다"며 피부에 와닿는 비교를 시도했다. '골프광' 트럼프의 도발에 바이든은 "누가 공을 더 멀리 보내는지 대결해보자. 부통령 때 내 핸디캡은 6(규정 타수보다 6타 많음)이었다"고 맞섰다. 트럼프는 그러나 "당신의 스윙을 봤는데, 핸디캡 6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바이든은 "한때(핸디캡) 8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애틀랜타=강태화 특파원

바이든 "일자리 5만개 창출" 트럼프 "불법이민자 위한 것"

현안마다 양보 없이 격돌

트럼프 "우크라에 유럽 돈 더 써야"
바이든 "이런 어리석은 소리 처음"

트럼프 "낙태는 각 주가 판단해야"
바이든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지지"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했다. 첫 토론 주제로 선정된 경제 문제에서부터 이민, 낙태권, 기후변화, 사회 복지 등 현안마다 첨예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인신 비방에 가까운 험한 말을 쏟아내며 위험수위를 넘나들 때도 여러 번 있었다.

토론 진행을 맡은 CNN 앵커 제이크 태퍼가 첫 질문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묻자 바이든은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뭘 남겼는지 보라. 우리 경제는 자유 낙하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원죄론'을 폈다. 그러면서 "나는 취임하자마자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며 재선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했을 때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며 바이든을 향해 "그는 일을 잘못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을 죽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그(바이든)가 만든 유일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것"이라며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너무나 형편없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국경 정책을 두고도 격하게 부딪쳤다. 트럼프는 "국경을 넘어오도록 허용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살해당했다"며 "그(바이든)가 국경을 열었고 살인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민자 유입 시 국경을 봉쇄하기로 한 최근 행정명령을 거론하며 "지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이 40%나 줄어든 상황이다. 그(트럼프)가 물러났을 때보다 나아졌다"고 반박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는 감정싸움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는 "푸틴의 존경을 받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다면 푸틴은 절대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은 "우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은 우리만큼이나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강력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트럼프를 향해선 "난 이처럼 어리석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싶어한다"고 공격했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낙태권 이슈를 놓고는 바이든의 공격에 트럼프가 방어막을 쳤다. 바이든은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며 "당신이 한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의 인적 구도로 재편된 데 이어 2022년 6월 여성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도록 결정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나는 훌륭한 대법관을 임명했고 그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미국을 되돌리는 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모두가 원했던 일"이라고 맞섰다. 다만 "낙태는 각 주(州)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폈다.

1·6 의회 난입 사태를 놓고는 트럼프가 쟁점을 회피하려 했다. 그는 당시 사태 책임과 관련된 진행자 질문에 "당시 1월 6일에 우리는 국경에 큰 장벽이 있었고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이었으며 세금이 역대 최저였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았다"며 '동문서답'을 했다. 이어 "나는 1만 명의 병력 지원을 (당시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에게 제안했지만, 그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미 NBC 방송은 이런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NBC에 따르면 의사당이 공격받았을 때 펠로시 당시 의장과 상원 다수당 대표였던 미치 매코널이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바이든은 "이 무대에서 유일하게 유죄평결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몰아세웠다.

애틀랜타=김형구 특파원

"얇은 목소리로 중얼" "바이든이 깨졌다"

미국 언론들 "트럼프 승리" 평가
NYT 내부평가 "바이든 승리" 0
바이든 "후보 사퇴 요구 없었다"

27일(현지시간) 열린 TV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CNN 여론조사에서 '누가 토론에서 이겼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를 꼽은 응답자는 67%로 바이든을 선택한 응답자(33%)의 두 배가 넘었다.

뉴욕타임스(NYT)가 칼럼니스트와 기고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0~5점 척도로 토론 승자 평가를 요청한 결과 '바이든이 이겼다'는 답변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완승'을 의미하는 트럼프 5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점 2명, 3점 1명, 2점 1명, 1점 1명이었으며 '동률'이라고 답한 이가 2명이었다. 다른 대부분의 외신들도 이번 TV토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쉰 목소리로 자주 더듬으며 기회를 살리지 못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활기찬 모습으로 초반부터 토론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토론 중 바이든 대통령이 "얇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거나,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했다며 "비틀거리는 게 눈에 확연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예 "바이든이 깨졌다(crash)"는 표현까지 썼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다"며 "당료들은 바이든이 말을 더듬고, 너무 늙었다는 유권자들의 우려를 진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쉴 새 없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바이든을 공개 지지해 온 한 민주당 전략가는 "바이든은 물러나라는 엄청난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당은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흔들리는(faltering) 모습에 충격을 받고 후보 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민주당 후원자는 폴리티코에 "바이든이 역사상 최악의 토론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 대신 바이든은 "거짓말쟁이와 토론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내고 "오늘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반 미국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청자에게 역대 최고의 토론과 승리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임선영·박현준 기자

90분 설전에 등장한 '한국·삼성·김정은'

바이든 "한국 등 50개국 우크라 지원"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사례도 언급
트럼프 "김정은, 바이든 안 두려워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은 대선 TV토론에선 한국과 삼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도 설전(舌戰) 소재로 등장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에 재대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맞붙었다.

한국이 언급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에서였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판하면서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대서양)가 있다. 왜 내가 한 것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바이든은 "이 남자(트럼프)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그들은 이게 전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자신을 두고 나오는 '고령 리스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재선 시 86세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대통령직 수행 역량이 충분한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이 남자(트럼프)는 나보다 어리지만 덜 유능하다"며 "그가 물려준 끔찍한 상황에서 내가 이뤄낸 것을 봐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해외 기업들의 투자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방문해 삼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현재 국력을 강조하면서 "나는 가장 강력하고 앞서나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트럼프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다고 한 김정은부터 푸틴까지 그가 애지중지하는 이들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길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주고받은 서신을 러브레터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독재자들을 높게 평가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비판하는 발언이다.

트럼프의 경우 한국과 관련해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김정은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3차대전에 매우 가깝다. 바이든이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진핑, 김정은, 푸틴 등은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는다. 바이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이든과 아무 친분이 없고, 바이든은 우리를 3차 대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김정은을 언급하긴 했지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승호 기자

건물 소유하며 비지니스 하세요! 도매업 / 쇼룸 / 리테일
VA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1.35M

3,600 SF 창고 / 리테일 / Warehouse / Industrial Flex,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495에서 1마일, Drive-in, 천장 18 FT, I-5 Zoning *추천업종: 도매업, 창고, 쇼룸, 리테일 SBA융자가능

샤핑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샤핑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FORTUNE Realty Advisors
미셸신 571.243.5797 캐빈신 703.395.3123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DC 창고 SOLD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샤핑센터 SOLD $2.4M DC.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1.6M Capital Hill지역
DC 샤핑센터 SOLD $4.5M Popeyes, 연인컵 $32만
DC NW 아파트 SOLD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SOLD $930K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DC Warehouse SOLD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미셸신 캐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김대중·오부치 선언, 진보·보수 연합정권이었기에 가능"

"국민감정의 차이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양국의 정치 지도자였던 때다. 왜 그런 시대가 존재했던 것일까.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당시 한국 주재 일본대사였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양국 간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접촉의 막전막후에 대해 써 놓은 기록을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85) 전 주한 일본대사는 28일 일본에서 발간한 『주한국대사 일지 1997~2000: 일·한 파트너십 선언과 그 시대』의 서두에 이렇게 적었다. 오구라 전 대사는 1997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대사를 지내며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작성 등에 관여했다. 이번 책에는 당시 일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입수한 외교문서 등을 함께 실었다. 한·일 관계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조명한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 도쿄에서 오구라 전 대사와 만났다.

〈김대중·김종필〉

오구라 가즈오 전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11일 일본 도쿄의 일본재단 패럴림픽 연구회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양국 회담 비화, 한국 사회 고찰 등 담겨

-대사 퇴임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출판한 이유는.

"일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개할 생각이었다. 몇 년 전 연구자에게 보여줬더니 꼭 출판하자고 했다. 다만 내 회상만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연구자에게 정상회담 기록 등 외교문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검증해달라고 부탁했다. 연구자가 나를 인터뷰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간행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 때마침 내년이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다."

오구라 전 대사가 서울에 부임했을 당시엔 한·일 간 어업 문제, 한국의 외환위기 등 난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는 부임 1주일 뒤 "아시아의 대의를 위해 일·한 양국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안중근 정신'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울 남산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전격 방문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주한 대사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오구라 전 대사가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책에는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신뢰를 구축했던 과정, 한·일 간의 긴박했던 회담, 판소리와 한국어 학습을 통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고찰 등이 담겼다. 방대한 자료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오구라 전 대사가 부임 직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의 일지다. 김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검토했던 내용이 '공동선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걸 알 수 있다.

1997년 부임 때만 해도 양국관계 냉랭
대사관에 총탄 자국 남아있을 정도
협력의 의미로 안중근기념관 찾아

일, DJ 당선을 민주주의 정착으로 봐
김대중·김종필 손잡았기 때문에
진보도 보수도 '공동선언' 반대 안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비슷한 내용 '신공동선언'은 무의미
함께 세계에 공헌할 방법 제시해야

'1997년 11월 6일.

일·한 관계에 대해 김 총재(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권 교체를 실현하게 되면 일본 총리를 만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첫째는 한·일의 '과거사 문제'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한·일 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다. 세 번째는 경제 문제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선 나는 일본 문화의 유입을 한국이 헛되이 막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전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고, 김 전 대통령은 전후 일본의 행보를 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런 역사적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

"한 가지 큰 요인은 당시 한국이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에 의한 진보·보수 연합 정권이었다는 점이다.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김대중과 박정희 정권의 핵심이었던 김종필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진보도 보수도 반대할 수 없었다. 그것이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크게 바꾸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일본도 1993년 자민당이 물러나고 이듬해 자민당과 사회당 등의 연립정권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이 출범하는 등 리버럴한 흐름이 있던 시대였다. 오부치 전 총리 자신도 정치적으로는 중도였다. 일·한 양측 모두 일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긴밀하게 연대하기 쉬운 정치 상황이었다는 의미인가.

"일본에는 오랫동안 한국에 아직 민주 정치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도 존재했다. 그러나 군사 정권과 싸워온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리버럴파(진보 세력)를 포함한 정치 세력들이 안심하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동선언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들은.

"일·한 양국 국민 사이에 상대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이 싹트고 있었다. 좋은 시대적 흐름이었다. 또 일·한 양국 모두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던 때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한의 연대로 인해 반북(反北)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지면 지역 안보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일·한이 연대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일왕 방한은 남북 긴장 안 풀려 무산

김 전 대통령의 국빈 방일(1998년 10월)을 앞두고 일본 정부 내에선 '천황(일왕)'의 방한 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오구라 전 대사의 일지엔 이렇게 기록돼 있다.

'1998년 10월 2일.

총리 관저에서 김 대통령 방일 관련 스터디 모임이 있었다. 담담하게 진행되던 모임은 두 가지 문제로 인해 다소 긴장됐다. 하나는 어업 문제였고… 또 하나는 천황의 방한 문제였다.'

-책에는 김 전 대통령이 천황의 방한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

"김 전 대통령은 천황 폐하의 방한 실현에 열의를 보였지만, 나는 '남북이 대립하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천황 폐하가 서울에 갈 수는 없다.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전했다."

오구라 전 대사는 1999년 3월 오부치 전 총리가 방한했을 때 "총리가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책에 밝혔다. 이를 위해 '유관순 기념비' 방문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고, 역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양국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당시부터 역사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나.

"예상치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공동선언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꼬리를 물고 이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다. 다만, 일·한 관계에는 진폭이 있고, 관계가 악화할 때 서울의 일본대사관에 대한 항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하나의 척도가 된다. 1960년대엔 대사관에 총알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진 적도 있었다. 내가 부임했을 때도 총탄 자국이 있었다. 그 후 총알이 돌이 되고, 돌이 계란이 됐다. 전임자의 경우 대사 차량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주먹으로 두들겨 맞았다. 내 경우엔 주먹은 사라지고, 판소리 '춘향전'이 항의의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위 양상이 이전과 달라졌고, 성숙한 국가 간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불씨가 남아 있고, 21세기에 들어서도 한·일 관계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에선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많은 일이 정치 문제화되기 쉽다. 민족이 분단돼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면 일·한 관계도 근본적으로 안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신(新) 공동선언' 창출에 적극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비슷한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선언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표방했지만, 과거사 관련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진정한 미래지향이란 일·한 양국이 세계에 어떻게 함께 공헌할 것인가를 양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주나 해양 개발 등의 사업을 공동 실시하거나 세계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

도쿄=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1998년 10월 7일 일본 도쿄 황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키히토 일왕에게 '천황 폐하'라는 극존칭으로 예우하며 술잔을 부딪치고 있다. [중앙포토]

THE CENTURION GROUP

TTR |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REAL TRENDS | TomFerry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S

차별화된 Sotheby's 만의 격조 있는 서비스를 지금! 경험 하세요.

Sylvia Son
Preferred Lender(MLO 2315038)
+1.703.629.2866
Sylvia.son@emetmorgage.com

David Park
Managing Principal
+1.646.644.2564
dpark@ttrsir.com

Jenny Park
Operations Manager
+1.858.692.4774
jennypark@ttrsir.com

계속되는 치열한 매물시장!
Sotheby's 팀은 바이어님들을 위해 오늘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럭셔리 콘도미니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00,000
콘도, 12유닛, 넓은 주차장, 12,411 SqFt

$9,2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8,132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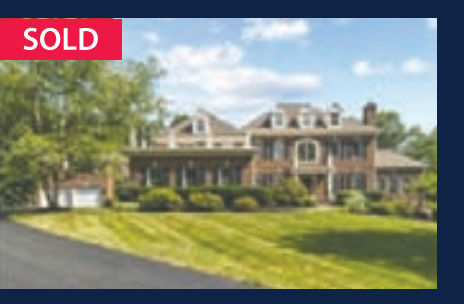
$4,776,000
콘도, 6유닛, 넓은 주차장, 12,180 SqFt

$3,804,900
콘도, 12유닛, 7,865 SqFt

LIST: $2,390,000
SOLD: $2,285,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8, 4,821SqFt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LIST: $2,188,888
SOLD: $2,20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4,360SqFt



LIST: $1,750,000
SOLD: $1,70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8, 6,804SqFt

오픈하우스 일정: 824 18th st NE, Washington D.C., 20002. 매주 일요일 2pm– 4pm.
웹사이트: https://www.dmvcenturiongroup.com/

LIST: $3,199,000
SOLD: $3,0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7, 4,075SqFt

LIST: $2,250,000
SOLD: $2,125,000
싱글홈, 방 7, 화장실 8, 4,887SqFt

LIST: $2,219,000
SOLD: $2,160,000
싱글홈, 방 6, 화장실 6, 3,707SqFt

LIST: $1,850,000
SOLD: $1,892,476
싱글홈, 방 6, 화장실 8, 5,195SqFt

LIST: $1,150,000
SOLD: $1,150,000
싱글홈, 방 5, 화장실 7, 4,505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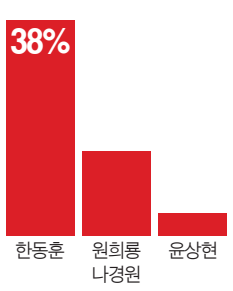
윤심·당심·민심을 잡아라, 여당 4인 살벌한 집안싸움

진영 간 싸움 이상으로 진영 내 싸움이 살벌할 때가 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벌이는 4인의 경쟁이 그렇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초반 판세는 1강(한동훈)-2중(원희룡·나경원)-1약(윤상현) 구도다.〈그래픽 참조〉 굳히려는 자와 엎으려는 자들은 여러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다. 대통령실은 개입하지 않는다지만 그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친윤·비윤을 넘어 창윤(創尹·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는 의미)·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까지 나왔다. 나·원·윤 후보가 한 후보를 맹공한다. '창윤'을 자처한 원 후보가 한 후보에게 '배신' 이미지를 씌우려 하자 한 후보는 "배신 안 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고 맞선다. 당·대권도 전선이다. 현행 규정에선 당 대표가 대선에 나서려면 13개월 후인 내년 9월 초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이걸 파고들고 있다. 차기 후보군에 속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 후보를 감싸고 있다. 전장이 한껏 포연으로 자욱해지며, 후보들이 ▶왜 출마했는지 ▶무엇을 하려는지가 희미해지고 있다. 후보 네 명의 공보 담당자들을 연쇄 인터뷰한 이유이다.

고정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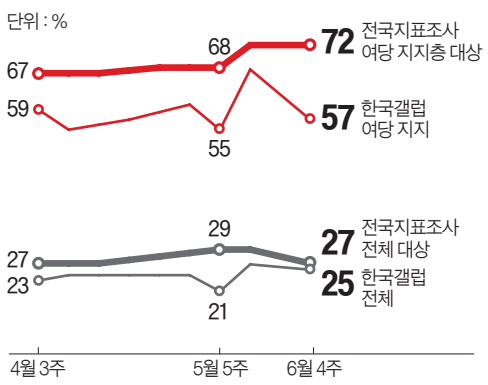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도

자료 : 한국갤럽 28일자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대상)



대통령 국정지지도로 본 민심과 당심의 차이

단위 : %



대구시의회 나경원 의원(오른쪽)이 28일 대구시의회를 찾아 이만규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은 … 김예령 수석대변인

나경원 후보의 김예령 수석대변인은 5선 여성 정치인으로서 나 후보의 연륜을 강조했다.

-왜 당 대표가 되려 하나.

"나 후보는 국민의힘의 뿌리·정체성이 흔들리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되살려 놓아야한다는 책임감과 목표의식이 확고하다. 당이 혼란스럽고 당내 분란에 대해 당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걸 불식시키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점도 출마 결심의 계기가 됐다."

-대선 전인 2021년 대표 경선에 출마했고, 지난해 출마하려 했었다.

"정치는 도전이다. 여성 국회의원으로 5선이고 국민의힘 역사를 이어온 분이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 여러 환경에서 실패했지만 나 후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살리고자하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불출마 과정에서 윤심(尹心)의 비토가 두드러졌다.

"정치를 하다 보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앙금은 없다. 알다시피 (윤 대통령과 나 후보는 서울법대 재학시절부터 교류한)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다. 당 대표가 되면 충분히 의견을 내면서도 당정 일체를 좀 더 굳건히 해나가려는 생각이다. 나 후보는 당정을 동행 관계라고 말한다."

-당선 가능성은.

"쉽지 않은 구도가 됐지만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 후보와의) 연대 얘기는 나 후보의 인지도나 경험을 흡수하고 싶어서 나온, 섣부른 얘기다. 나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도청 원희룡 전 의원(왼쪽)이 28일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은 … 권신일 공보단장

원희룡 후보의 권신일 공보단장은 '원조개혁소장파'로서의 이력을 강조했다.

-왜 당 대표가 되려 하나.

"원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돌린 명함 뒷면에 이런 글이 있다. '우리 모두 동지입니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할까 봐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뭉쳐도 버겁고, 무도한 상대가 있습니다'인데 그대로다. 원 후보는 그간 안 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 후보 중 한 명은 윤석열 정부랑 계속 각 세우고 또 한 명은 대통령과 어떤 신뢰나 믿음, 같은 경험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없어 정말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거다. 정권 창출한 사람으로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 나온 거다."

-대통령실과 교감 하에 나왔다는데 대등한 당정 관계가 되겠나.

"대통령이 격려해주었다는 정도의 교감이다. 레드팀을 만들어서 설득하며 일하겠다. 실제로 개선한 경험이 있다."

-비교우위는 뭔가.

"첫째 도지사·국회의원·장관 등 민주당에 대응한 경험을 가진 리더다. 둘째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장관직을 했다. 대통령과 신뢰 속에서 당정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셋째 '원조개혁소장파'로 변화를 실행해봤다는 거다."

-당선 가능성은.

"공식적으론 결선투표 가서 뒤집겠다는 것이다. 당원 상대 조사가 나오기 전이지만 보수 유튜버들의 조사에선 이미 판이 바뀌고 있는 게 나오고 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결선까지 가지 않고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경북도청 윤상현 의원(왼쪽)이 28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지사를 예방하고 있다. [뉴시스]

윤상현은 … 최승재 전 의원

윤상현 후보 측 최승재 전 의원은 험지인 인천에서 5선 한 윤 후보의 감각과 친화력을 부각했다.

-왜 당 대표가 되려 하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신뢰다. 윤 후보는 여야 따로 없이 신뢰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교류할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경륜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상대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도 계속 꽉 막힌 채로 갈 수 없다. 윤 후보는 어렵다는 인천에서 내리 5선을 했다. 정치지형이 불리한 가운데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략과 해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과거 당이 안이한 상황에서도 할 말을 쉬지 않고 했다. 이번에도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리 되지 않았나. 혜안이 있다. 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는 기본적으로 대선주자다. 뺄셈 정치를 타파하고 우리 서로 간에 공격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 덧셈 정치를 하는 정무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본 일이 적다.

"근래엔 그렇지만 과거엔 사무총장이나 원내직을 많이 했다. 중간에 공천을 못 받아서 선수(選數)가 애매한 위치가 됐다. 그러나 할 말은 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역할을 해왔다. (타 후보들은) 대선주자이기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히 혁신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당선 가능성은.

"우리 당이 가야할 정신을 계속 살리지 않으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려야 한다. 당원들의 저력과 열망이 큰 힘으로 윤상현의 덧셈 정치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확신한다."

부산시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왼쪽)이 28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을 만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은 … 정광재 대변인 겸 공보단장

한동훈 후보의 정광재 대변인 겸 공보단장은 한 후보의 변화 의지와 절실함을 강조했다.

-왜 당 대표가 되려 하나.

"한 후보는 108일 동안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당을 이끌었다.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절실하게 파악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당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비교우위는 뭔가.

"한 후보는 이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이 당에서 정치를 마칠 것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에게 당당한 승리를 안겨드리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한다. 그 간절함의 크기와 절실함이 한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관계가 껄끄럽다고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박력 있는 리더다.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 대단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직관이 때론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론 불통의 이미지로 비쳐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정교한 참모들의 조력이 필요한데 국민에 부응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때도 있다. 한 후보는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면서도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다."

-경선 구도가 사실상 '반한(反韓)' 연대 같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원 동지들의 열망이 커지고 있기에 무난히 1차에 과반을 달성할 것이라 생각한다."

WIDE SHOT

아빠 마음 아기 새가 생애 첫 비행을 위해 둥지 위에 올라섰다. 그 모습을 응원하듯 아빠 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다. 전라북도 군산의 한 야산에 둥지를 틀고 번식에 성공한 긴꼬리딱새의 이소(離巢) 현장이다. 삼광조로도 불리는데 파란색 안경을 쓴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이 특징이다. 수컷 성조는 길고 우아한 꼬리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몸길이의 약 두 배에 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적색목록 취약종(VU)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아기 새는 둥지 부근에서 비행 연습을 하다 독립하는데, 부모 새는 아기 새 주변을 떠나지 않고 이소를 돕는다. 다 자라 집을 떠나는 자식에게 마지막 한 끼를 챙겨주려는 부모 마음은 새나 인간이나 똑같은 듯하다. 사진·글=최기웅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제0차 세계대전

글·그림 이원복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현 60세 남성-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구좌로 장기간호 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루기

‘깨친’ 자와 ‘깨우친’ 자

건강관리, 시험공부 등등…. 해야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실행에 나서긴 정말 어렵다는 걸 느낄 때가 많다.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남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 줘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위 글에서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표현엔 어폐가 있다. ‘스스로’라는 단어와 ‘깨우치다’는 단어가 서로 호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깨우치다’는 ‘깨치다’의 어근에 사동 접사인 ‘-우-’를 붙인 사동사로, ‘깨달아 알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다. 그러므로 ‘깨우치다’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깨닫게 해 주는 걸 의미한다. “나는 동생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다” “이 책은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었다” 등처럼 쓸 수 있다.

스스로 깨닫는다는 걸 표현할 땐 ‘깨우치다’가 아닌 ‘깨치다’를 써야 한다. ‘깨치다’는 ‘일의 이치 등을 깨달아 알다’라는 뜻이다. “그 아이는 다섯 살에 한글을 깨쳤다” “수학의 원리를 깨치고 나니 성적이 쑥 올라갔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예문은 “스스로 깨쳐야 한다”고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가 혜택이라는 착각

김동필
논설실장

1990년대 말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 한인 벤처 스타도 여러 명 탄생했다. 유리시스템스라는 통신 장비업체를 10억 달러에 매각한 김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중학생 때 이민 온 1.5세라는 것이 더 친밀감을 갖게 했다. 한인 차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종훈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13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이다. 당시 한인 사회는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온갖 억지스러운 시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그의 국적 문제였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적 거부감이었다. 그는 시민권 포기까지 결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55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연령 하향’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복수국적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 원인 역시 국민 정서 탓이 크다. “국방, 납세 등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만 보려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반감이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돼도 통과가 어렵다.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봐야 정작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안들은 시간만 지체하다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혜택만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일까?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인 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를 해외동포들에게 베푸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한국과 재외동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서적 거부감의 밑바닥에 있는 ‘얌체족’ 이슈를 보자. 물론 건강보험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니어들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미국이 훨씬 많다. 이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유입되면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우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복수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복수국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장기 체류의 편리함이다. 물론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시민권자도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만큼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확대 명분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를 내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 바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유치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주거지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생활비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서 가져다 쓰기 마련이다. 복수국적자 2000명이 연간 5만 달러씩만 써도 총액은 1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2000명가량이다. 그런데 이 일이 여론조사 결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김종훈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J네트워크

애니싱 벗 K팝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

“솔직히 기대했는데 많이 허탈하긴 하네요.” 베이징 공연 취소 소식을 들은 뒤 록밴드 세이수미의 보컬 최수미가 전화통화로 기자에게 밝힌 심경이다.

세이수미는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해온 혼성 4인조 록밴드다. 데뷔 5년 만에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앨범과 노래 부문에서 수상했다. 지난달 베이징문화여유국이 세이수미의 공연을 허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큰 기대를 모았다. 2015년 그룹 빅뱅의 중국 투어 이후로 무려 9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국 대중가수의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남기고 공연이 무산됐다. 최수미는 “중국 여러 도시에서 공연을 추진했다가 베이징만 겨우 허가받았다”면서 “그마저도 취소되니 기운이 빠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콘텐트 금지령)’을 중국 정부는 문화계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 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콘텐트는.사라졌고.한국 연예인 활동도 막혔다. 그러다 2020년부터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분야는 점차 풀렸지만 한국 대중음악엔 여전히 이상하리만큼 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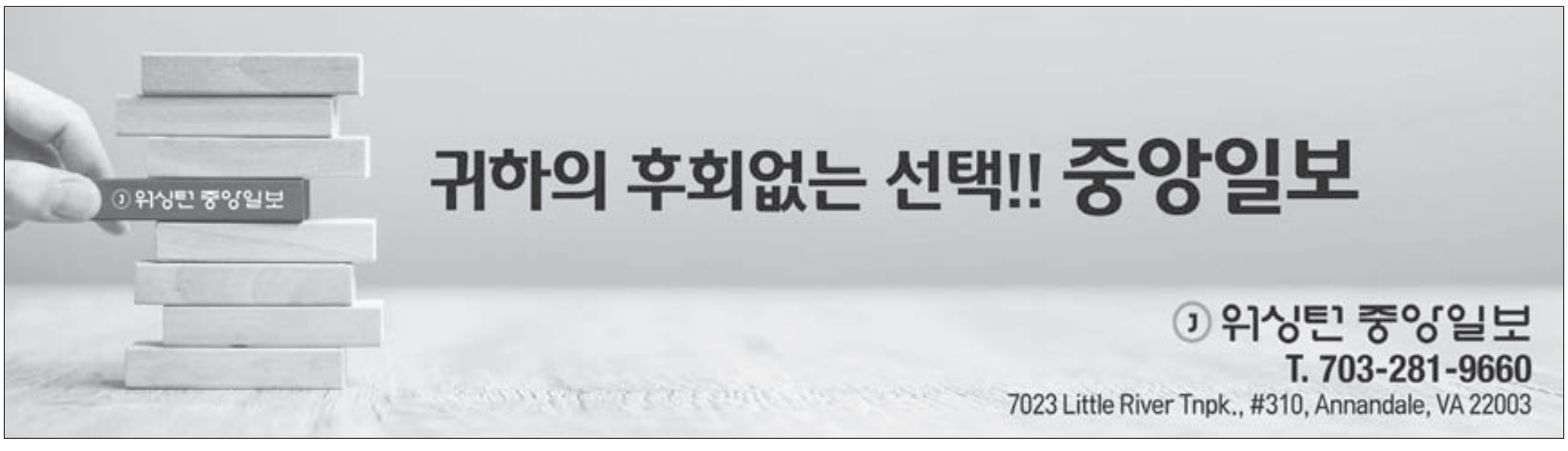
영국 그룹 웨스트라이프, 일본 밴드 킹누 등 다른 나라 가수는 중국서 자유롭게 공연을 연다. 박재범·헨리 등 외국 국적 K팝 가수들도 활동에 제약이 없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재즈 뮤지션 마리아 킴 등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대에 섰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 대중 가수에게만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콘텐트 업계 관계자는 “애니메이션·게임 등 국적이 애매한 작품에 대해선 덜하지만 한국 것이라는 게 명확하고 중국 청년들이 크게 열광할 만한 K팝은 규제가 강한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K팝 봉쇄’에도 중국 팬들의 사랑은 여전하다. 중국 음원 차트 절반은 K팝 차지다. 노래 한 곡 못 듣는 팬 사인회도 팬들이 가득 메운다. 아이돌 멤버 생일이 되면 중국 팬클럽이 자체 생일 파티를 연다. 커버댄스 등 ‘가수’만 뺀 K팝 공연은 이미 진행 중이다.

콘텐트 업계는 K팝에 묶인 사슬이 머지않아 풀릴 것으로 본다. 이미 홍콩·마카오에선 K팝 가수가 포함된 대형 공연이 열린다. 다른 지역도 K팝 공연에 열의를 보인다고 한다.

다만 중국 정부의 ‘윤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내 K팝 공연 재개야 말로 한한령이 사라졌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 같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좌골 신경통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관절 클리닉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통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오전9시30분-오후7시 ■일:오전11시-오후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6월 스페셜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리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튼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김오곤 침향 녹용단 $430 $199.99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159.99
광동 침향환 20% Sale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엿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쓴 여주를 먹기 좋게 환으로
당뇨, 통풍, 콜레스테롤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 엔 매스틱
medifree 코팅식이섬유 쾌변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Nutridom Collagen 캐나다산 마린콜라겐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이롬 키즈10 키 10배 키우기
이롬 황성주생식
징코크린정
농협홍삼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디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1oz $40
4oz $120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감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공짜선물이 팡팡
황풍정 홍삼 국내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Umeken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몰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큼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혈액순환, 해독, 피로회복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불면증, 신경안정, 눈 건강, 피로회복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관절염 통증과 붓기에 도움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통증 크림
순도 1000 / 2000mg
함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을 촉진시키는 CBN 함유중독성 없는 천연 수면제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중앙 Satur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HARDWARE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대표전화 : (703)281-9660
Saturday, June 29,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 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읍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탈색 머리에 오프숄더까지…이 언니들, 진짜 60대 맞아?

〈어깨가 노출되는 옷〉

이 언니들, 60대 맞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패션 기사를 보면,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 사이로 60대 여배우들의 소식들이 눈에 띈다. 중견 배우다운 세련되고 우아한 스타일은 물론이고, 여느 20대 못지않게 캐주얼하고 과감한 차림도 거뜬히 소화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멋진 실버 라이프 '그레이 크러시' 선도

"나이 들어도 여전히 멋있으시다." "홍사강은 오로지 이혜영님만의 영역이다." "배우님 환갑이 지난 연세에도 참 멋있으신 듯."

MBC 드라마 '우리, 집'에서 '홍사강' 역으로 열연 중인 배우 이혜영(62)을 좋아하는 유튜브 댓글들이다. 정확한 발음과 흔들림 없는 시선, 매력적인 목소리와 드라마틱한 대사 처리 등 배우 이혜영의 연기실력이야 이미 오래 전부터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요즘 이 드라마를 하면서 이혜영에 대한 찬사가 하나 더 늘었다. 바로 '60대 패셔니스타'이다.

그녀는 드라마 제작발표회 때도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보디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어공주 스타일 드레스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드라마에서도 회를 거듭할수록 그의 옷차림은 화제가 되고 있다. 남편의 죽음을 기뻐하며 그로데스크하게 춤출 때 입었던 모노톤의 꽃무늬 가운, 검정색 가죽 재킷과 롱 드레스 그리고 레이스 모자가 묘하게 믹스매치된 미망인 의상, 혼자 국수집을 찾았을 때 입었던 실버톤 시가렛 스커트 등. 투톱으로 함께 나오는 40대 배우 김희선 역시 다양한 럭셔리 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지만, 시청자들 중에는 '김희선보다 이혜영'이라고 평하는 이들이 많다.

그의 옷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60대 패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60대 여성의 옷차림은 '아줌마 스타일'로 한정적이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변변히 새 옷 한 벌 장만하지 못한 소박한 모습. 그 반대쪽에는 깔끔한 슈트 차림의 고집 센 '회장님'이 있다. 그런데 이혜영의 극중 옷차림은 오로지 '홍사강'이라는 캐릭터에 충실하다. 오만하면서도 허점 많고, 허세와 아이같은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이 60대 여성 '홍사강'에선 우리의 선입견 속 아줌마도 할머니도 회장님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한 여성의 캐릭터만 보일 뿐이다.

60대 '그레이 크러시(Gray Crush·나이 들어도 멋진 실버 라이프를 추구하는 중장년 세대를 이르는 신조어)' 여배우들의 화려한 패션 기사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배우 황신혜(61)는 얼마 전 휴양지에서 선보인 수영복과 미니스커트로 화제가 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2만명인 황신혜는 20대 뺨치는 날씬한 몸매와 더불어 발랄하고 개성 있는 사복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김주원(현빈)의 엄마 문분홍 여사로 눈도장을 찍은 박준금(62)은 요즘 유튜브 '매거진 준금'을 통해 맹활약 중인데 구독자가 13만7000명이다. 지난 6일에는 '시원+센스 여름 클래식 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한쪽 어깨를 과감히 드러내는 옷을 선보였는데 "여름에는 파인 옷이 예뻐 보이더라.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다"며 "요즘 나이가 어딨냐. 예전에는 내 나이에 이렇게 벗고 다니면 미쳤다고 할 텐데, 요즘은 그런 거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서정민 기자

» 4면 '여배우 패션'으로 이어집니다

드라마 '우리, 집'에서 추리소설가 '홍사강' 역을 맡은 배우 이혜영의 제작발표회 때 모습. [사진 MBC]

1 '60대 제니'로 불리는 배우 박준금. 2 프릴 장식의 미니스커트도 거뜬히 소화하는 배우 황신혜. 3 사랑스러운 헵번 룩을 선보인 배우 최화정. [사진 인스타그램]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자동차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Partner 보험회사
Nationwide
MERCURY INSURANCE
PROGRESSIVE
National General Insurance
STILLWATER
Berkshire Hathaway GUARD Insurance Companies
Safeco Insurance
THE HARTFORD
AIG

SF 소설·영화 속 미래 사회 왜 암울한 풍경이 많을까

1982년에 만들어진 SF영화의 고전, '블레이드 러너'는 어둑어둑한 LA의 모습이 천천히 다가오는 광경으로 시작한다. 비가 끊임없이 추적추적 내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암울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 모양의 건축물이 나타난다. 타이렐사(Tyrell Corporation) 건물이다. 창업자 타이렐은 안드로이드 노동자 레플리컨트를 독점생산해서 막대한 경제력을 갖게 된 기업인인데, 영화에서 묘사된 그의 모습은 거의 전제군주 느낌이다.

1 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에서 거대기업 타이렐사. 2 주인공(해리슨 포드)의 임무는 도망친 레플리컨트(인간형 로봇)를 찾아 '은퇴'시키는(제거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은퇴시킬지도 모른다. 3 영화 '메리 포핀스 리턴즈'(2018)에서 20세기 초 가스 가로등 켜는 일꾼들. 기술 발달에 따라 사라진 직종 중 하나이다. [사진 워너 브라더스·월트 디즈니]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은 2019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2024년인 지금 '인간보다 더 인간같은' 레플리컨트를 독점생산하는 타이렐사와 같은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수의 기업들이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러한 경쟁시장 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가계와 기업들은 모두 스스로의 효용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결정을 각각, 따로따로 내린다. 시장은 그런 모든 자율적인 의사결정들을 모아서 가격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내고, 그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배분된다.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것과 반대쪽에 있는 것이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된 결정을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기관이 한다. 20세기 공산주의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시행된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생산수단을 중앙정부가 독점했고 소비재는 배급이 기본이었다. 시장을 완전히 독점한 민간기업이 있다면 단일 기업, 또는 타이렐 같은 개인에게 생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집중된다.

거대 기업·권력이 경제 독점·통제

재미있는 것은 미래사회를 그린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런 독점기업이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가 종종 등장한다는 점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범죄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가진 거대 독점기업이 나오고, '브라질'에서는 과거의 역사까지 고쳐 쓸 수 있는 파시스트적 정부가 존재하는 통제사회가 그려진다. 이제는 일상적 단어가 되어버린 '빅 브라더(Big Brother)'를 등장시킨 소설 『1984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왜, 미래를 그린 많은 소설이나 영화가 이런 중앙집권적인 통제사회나 독점적 경제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규모가 커지면 단위비용은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진다. 규모의 경제, 분업의 효과, 노하우 축적 등등.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몇몇 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획득하여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게 되기도 한다. 20세기 초 카네기나 록펠러는 타이렐에 버금가는 경제권력을 누리면서 피라미드 대신 카네기홀과 록펠러센터를 지었고, 지금도 반도체나 농산물 종자산업, 스마트폰 운영체제 등에서는 소수의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미래로 몇십 년 연장하면서 상상력을 약간 가미하면, 우리가 소설에서 종종 보는 거대 독점기업이나 통제사회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진다.

독점이나 독재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진 미래사회를 그리는 영화가 암울한 이유는 뭘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람의 노동이 같은 양 들어갔을 때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좋은 일이긴 한데, 뒤집어 생각하면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고용을 덜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고용없는 성장'이나 '노동 소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래 SF의 분위기가 암울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대개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8세기 산업혁명 발생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은 언제나 근로자들의 크고 작은 저항을 불러 일으키곤 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러다이트 운동이었는데, 19세기 영국에서 방직업이 기계화되니까 방직공들이 기계를 때려 부숴버렸다. 뉴욕시의 가스등이 전등으로 교체될 무렵인 1907년에는 가로등 불 켜는 일을 하던 사람들 600명이 파업을 했다고 한다. 생산성의 향상이 인류 전체에게 분명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곤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회가 이 사람들을 보살필 만한 역량과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넉넉한,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예를 들어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일정기간 주면서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할 수 있다. 좀 더 전통적으로는 자식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취직한 다음 부모를 부양하기도 했다. 20세기 중반 한국에서 논 팔고 소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 농민들을 생각해 보면 쉽다. 물론, 재정지출을 이용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어떨까.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2016년에 이세돌 9단을 바둑에서 꺾고, 오픈AI가 2022년말 챗GPT를 내놓으면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10년 전까지는 기계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물리적 힘을 보태주거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돕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 즉 패턴인식, 판단,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까지 기계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등장하면 앞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신이 훨씬 빠르게, 한꺼번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 지금 이미 시험주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트럭이 실제로 도입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조금 더 먼 미래에 트럭 운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산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담당하게 된다면 경제체제는 어떻게 될까.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으니, 현재와 같은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이 보장되게 만드는 소위 '기본소득'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생산에 필요한 자본, 인공지능, 로봇 등을 소유한 특정 민간회사나 정부가 생산에 필요한 의사결정들을 독점하고, 거기서 나온 부가가치를 전국민이 기본소득 형태로 받아간다는 얘기다.

공산주의 독재가 미래 모습일 수도

중요한 것은 그런 미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보자면,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노동시간이 차츰 줄어들면서 기초생활보장이 점점 확대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기본소득 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 생산을 하고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타이렐사와 같은 민간회사가 있으면서 그 주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형태도 가능하다. 사람들은 생계 걱정 없이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 경제와 시장경제가 적당히 섞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직접 구워 먹다가, 조금 많이 구우면 소규모 판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말로 이런 세상이 온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폭력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독재정부가 자리를 잡는 시나리오. 국가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소수의 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을 독점하며, 일반 대중은 간신히 생존할 수준의 배급만 받고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 수십 년 뒤 우리 앞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갈림길일지도 모른다.

이태환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NEW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창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든, 버지니아

NEW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단독 건물
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

NEW
디씨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사무실
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사무실
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

Beer & Wine Shop
주2만불수입
랜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Beer & Wine Shop
주1만8천불수입, 랜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상가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상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상가
발티모아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

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 업 체
주재원 랜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톱가수서 미대 교수로 22년 … 75세, 다시 '그림같은 목소리'

지난 5월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 북촌의 한 카페 건물 2층에 중장년 남녀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짙은 선글라스를 낀 75세의 가수 정미조가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해 저 유명한 '개여울'부터 '귀로' '휘파람을 부세요' 등 히트곡과 신곡 '엄마의 봄'까지 가만히 읊조린다. 한 시간 남짓 작은 음악회였지만, 노가수가 힘 빼고 불러주는 몇 곡의 노래가 고단했던 하루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노래하는 화가 정미조는 1980년대 파리에서부터 자화상을 그려왔다. 그가 서울 서초동 화실에 놓인 자화상 사이에 누워 있다. 김상선 기자

72년 데뷔해 79년 은퇴, 8년 전부터 재개

아이돌이 점령한 음악시장에 어른을 위한 노래가 참 없다. LP 바에 가서 피곤해진 귀를 씻어내곤 하지만, 대체로 흘러간 옛노래들이다. 7월 초 나오는 정미조의 새 앨범이 귀한 이유다. 미대를 나와 1972년 데뷔하자마자 톱 스타로 뜬 그는 79년 돌연 은퇴하고 37년간 음악 아닌 미술을 했지만, 8년 전 컴백해 꾸준히 신보를 내고 있다. 지금 나이의 현재적 기록이라는 의미와, 전성기였던 1975년을 가리키는 '75'라는 타이틀을 단 이번 앨범은 이효리·존박·유채훈·손태진·멜로망스·하림 등 후배들과의 콜라보가 절반인 특별한 작업이다. 이효리와 함께 부른 '엄마의 봄'은 이효리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선공개해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정미조를 만난 건 녹음실이 아닌 화실에서다. 22년간 수원대 미대 교수로 일했던 그는 지난해 모교인 이화여대에 자신의 그림과 앙드레김 디자인 의상 수십 점을 기증하고 전시를 열기도 했다. 시력 저하 탓에 이제 채색화를 그리긴 어렵지만, 드로잉은 지금도 앉은자리에서 수십 장씩 그릴 수 있다고 했다. 과연 화실엔 1980년대부터 그린 자화상 드로잉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요즘도 화실에 자주 오시나요.

"색이 정확히 안 보여서 붓은 거의 놨는데, 드로잉은 크리넥스 뽑듯이 해요. 얼마 전 제자가 내 물건을 정리하다가 드로잉이 쌓여 있는 걸 발견하고 도록을 따로 만들었죠. 거기 선정한 것만 5000장이고, 전부 1만 점이 넘어요. 너무 많이 그려놔서 이걸 다 어떻게 하나 고민이죠."

-이효리와 부른 '엄마의 봄'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나도 연습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그리움이 있는데, 이주엽 프로듀서가 쓰신 가사가 마치 내가 쓴 것 같아요. 손성제 작곡가가 효리씨와 듀엣을 제안했는데, 마침 엄마와 함께 여행 가는 예능을 찍는다면서 바로 오케이 하더군요. 딸이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는 또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 컨셉트의 노래예요. 모든 사람에게 엄마는 각자의 우주잖아요."

-후배들과 콜라보는 즐거우셨나요.

"음악성 있는 후배들과 대화하듯이 기록을 남기는 기획인데, 대부분 내 노래를 자기 콘서트에서 불렀었다더군요. 덕분에 즐겁게 작업했죠. 그런데 이번에 느낀 건, 후배들의 젊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내 목소리가 더 젊어진 거예요. 존박과 부른 '너의 눈망울'을 지인에게 들려줬더니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며 놀라더군요. 이제부터 시작인가 싶습니다.(웃음)"

후배들과 콜라보 앨범 '75' 곧 발매
젊은 기 받아서인지 목소리 젊어져

정미조의 목소리에는 바람이 분다. 기계로 깎아낸 게 아니라 사람의 숨결이 고스란한 목소리로, 눈 감고 들으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 '근사한 어른의 음악'. 정미조의 노래다. 4~5곡 짜리 미니 앨범이 대세인 요즘, 정미조는 늘 13~14곡을 꾹꾹 눌러담은 정규앨범을 고집한다. "한국에도 멋진 어른의 음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미조의 음반을 낸다. 75세에 옛날 노래가 아니라 현재적인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가요사의 중요한 유산이 될 거라 생각해 충분하게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는 게 컴백부터 줄곧 함께한 이주엽 프로듀서의 말이다.

-무대를 떠났던 건 화실을 더 사랑해서일까요.

"무대 자체는 행복했어요. 어려서부터 무용을 해서 무대가 삶의 일부였죠. 노래는 배운 적 없지만 그냥 라디오에서 듣고 흥얼거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더군요. 대학 행사 때 패티김 선생 눈에 띄어 알려지게 됐죠. 앙드레김 드레스에 풀오케스트라 반주로 몇 년간 신나게 활동했는데, 요즘은 가수가 대단한 스타인지 몰라도 당시엔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음악은 달콤한 외도라 생각했기에 전공인 미술로 돌아가는 게 당연했죠. 갑자기 떠난 것도 아니고 2년간 어학공부 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파리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낭만의 도시 파리를 즐길 수 없었단다. "와인의 본고장에서 와인 한잔 마실 체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요리도 못하고 돈도 없어서 삼층밥에 쓴 김치를 담아 먹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포도주스에 럼주를 타 먹었다가 아주 혼이 났죠. 아티스트랍시고 담배를 피워볼까 했지만 연기 냄새를 도저히 못 맡겠고. 힘들어서 적당히 귀국하려고 했더니 은사께서 연예인이라 대충 했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박사학위를 따고 오라더군요. 그 바람에 13년이나 파리에서 외로움을 견뎠네요."

-근사한 창법은 유학 시절 샹송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요.

"어쩌다 TV에 나나 무스쿠리가 나오면 보긴 했지만 일부러 찾아 듣진 않았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고, 70년대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가 '더 웨이 위 워(The Way We Were)'였죠. 그녀가 부른 헨델의 '울게 하소서' 만큼은 다른 일 하다가도 멈추고 들어요. 그런 세미클래식 가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창법은 저절로 터득한 거예요. 내 노래를 작곡하는 손성제 교수도 클래식과 재즈를 공부한 데다 약간 가요 느낌도 있어서, 세미클래식을 좋아하는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림과 노래를 오갔는데, 첫 번째 정체성은 뭘까요.

"똑같아요. 주어진 감각을 물감으로, 율동으로, 소리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난 무용 공연도 곧잘 보러 갔는데, 움직이는 그림이라 생각해서죠. 무대라는 게 종합예술이거든요. 내가 무대에 서서 흔들흔들 제스추어 하는 건 적당히 흥에 겨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 앵글과 사람들 시선을 고려해서 모든 동작과 동선을 연출하는 거죠. 그게 다 미술과 관계 있고, 결국 종합예술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백남준의 영향이 크다. 음악을 공부하다 현대미술 거장이 됐지만, 작업실에 피아노를 두고 늘 음악에서 영감을 찾았던 게 백남준이다. 그런데 2016년 컴백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건 1979년 고별 공연에 게스트로 나왔던 최백호다. "백남준 선생이야말로 독일에 현대음악 배우러 갔다가 플럭서스 멤버가 돼서 미술을 하게 됐잖아요. 전시 오프닝 때 가면 항상 피아노 연주를 하시더군요. 그걸 보고 나도 노래와 그림을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2010년 윤석화씨가 하시던 복합문화공간 정미소에서 개인전과 공연을 같이 했었죠. 그때 최백호씨가 와서 목소리가 아깝다며 컴백을 권했고, 자기 음반 제작자까지 적극 소개한 덕에 여기까지 왔네요."

-덕분에 노래로 위로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뿐인데, 나같은 사람을 일부러 찾아와 주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 돌아오길 잘했다 싶어요. 작년 대학로 콘서트 때는 40대 남자 5명이 내 젊었을 때 사진을 프린트한 티셔츠를 맞춰 입고 왔더라구요. 컴백 이후 생긴 팬들이라 더 감사하죠."

"60대에 다시 태어났으니 아직 몇살 안돼"

-동년배인 나훈아씨는 은퇴선언을 했는데요.

"나는 소리가 안 나오면 은퇴라는 말도 없이 돌아서서 갈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에 소리가 더 좋아졌다는 얘길 듣네요. 파리에 있을 때부터 감기를 달고 살았고, 40대부터 학교 일로 과로한 탓에 60대 초반까지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면서 조금씩 회복됐고, 60대 후반에 노래를 다시 시작하고 새 삶을 펼치게 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노래를 하면 할수록 몸이 점점 좋아지네요. 전에는 그림 그리다 힘들어 드러눕곤 했는데, 노래하다 드러눕는 일은 없어요.(웃음)"

실제로 그는 시력 저하를 빼곤 매우 건강해 보였다. 군살 없는 체형에 매끈한 피부는 75세로 보이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토마토·사과·당근·양배추·바나나·브로콜리로 직접 만든 해독주스를 먹어서일까. "60대에 다시 태어났으니 아직 몇 살 안 됐잖아요.(웃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내 몸은 40대 말 50대 초 같아요. 처음엔 기운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단하고 힘든 게 하나 없어요. 음악 덕분인 것 같아요. 음악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다 보니 이렇게 다시 태어난거죠.(웃음)"

유주현 기자

영화 '탈주'는 탈북하려는 북한군 규남(왼쪽, 이제훈)과 그를 쫓는 보위부 현상(오른쪽, 구교환), 두 청년의 숨 가쁜 추격전을 그렸다. 이종필 감독과 전작을 함께한 배우 이솜(가운데)이 북한 유랑민 리더로 특별 출연했다. [사진 플러스엠]

북한판 '쇼생크 탈출'… 이데올로기는 쏙 뺐죠

'고민은 끝났다. 직진한다.'

이종필(44) 감독이 영화 '탈주'(7월 3일 개봉)를 준비하며 써본 주인공 규남(이제훈)의 수기의 핵심 문장이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 감독은 "규남이 생고생해서 행복해졌는지는 중요치 않다. 목표를 자기 의지대로 해내는 과정의 쾌감과 가능성, 지금 이 순간 '살아있구나' 느끼는 감각만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탈주'는 상영시간 94분 내내 질주하는 영화다.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북한군 중사 규남은 첫 장면부터 망설임 없는 몸짓으로 탈북을 준비한다. 타이머와 나침반을 손에 쥔 채, 최전방 철책선 너머 지뢰 매설 위치를 파악한 뒤 부대로 돌아오길 반복하는 그의 치밀함은 탈옥 소재 영화 '쇼생크 탈출'(1994)을 연상시킨다.

'탈주'는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전국노래자랑'(2013) 등의 연출자이자 배우 출신인 이 감독의 첫 액션 연출작이다. 단편 '불을 지펴라'(2007)에서 록 음악을 동경해 탈북한 북한 청년을 그렸던 그가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2022), 영화 '공작'(2018)을 쓴 권성희 작가의 각본을 토대로 메가폰을 잡았다.

"귀순 병사의 사연이 아니라 '탈주' 그 자체에 관한 영화"라고 작품을 정의한 그는 "탈주는 기존 질서와 체계를 전복하고 새로움을 끌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영화에서 규남은 어린 시절 알고 지낸 보위부 소좌 현상(구교환)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 받지만, 탈북 의지를 꺾지 않는다. 현상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 그는 오로지 남으로 직진한다.

빠르게 사건을 전개시키는 연출 방식이 도드라진다. 신파적 사연을 기피하는 요즘 관객 취향을 고려한 결과다. 이 감독은 "젊은 친구들이 '고뇌는 현실에서 하니까, 영화는 고민 없이 쭉쭉 가는 걸 보고 싶다'더라"면서 "요즘 말로 '시간 순삭(순간 삭제)'을 성취해보고자, 연출 개념을 뺄셈으로 잡았다.

북한군 중사의 치밀한 탈북 그려
초인적 능력으로 94분 내내 긴장감

규남의 동기나 인과 관계도 최대한 뺐다"고 말했다.

기존 북한 소재 영화·드라마가 남북한 역사, 긴장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탈주'에서 남한의 존재감은 규남의 골인 지점 정도다. 이 감독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사실주의가 아니라, 이 영화가 매혹적인 악몽 같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소재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냐고 묻자, 이 감독은 연출 제안을 받던 시기 우연히 본 해외뉴스를 언급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비행기 바퀴에 몸을 묶고 유럽 밀입국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얼마 뒤 만난 그의 친구는 술에 취해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 절절한 마음들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때렸다고 한다.

이종필

영화에선 현상의 사격 실력도, 규남의 도주 능력도 다소 초인적으로 그려진다. 순수하게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활극을 찍고 싶었다는 이 감독은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덴마크산 PC 게임 '인사이드'를 꼽았다. "어딘가에 갇힌 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화면 오른쪽 방향으로 탈출하는 게임"이다.

대자연에서 구르고 내달리는 아날로그 액션도 볼거리다. 충주 비내섬부터 화성·광양·여주·남양주·가평·동두천·김제·공주·아산·무등산·인제 등에서 최전방 부대, 비무장지대 장면을 촬영했다.

하이라이트는 규남이 전력 질주하는 후반부 일출 장면이다. '러시안 암'(주행 장면 촬영용 카메라 장비)을 장착한 포르쉐 차량 속도에 맞춰 이제훈이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규남의 원초적 모습을 위해 이제훈은 '생존형' 근육을 만들었다. 이 감독은 "프로틴을 먹고 키운 '자본주의 근육'이 아닌 장작처럼 마른 근육 몸매"라고 평했다. 이제훈은 진흙탕 늪(실제론 미숫가루로 만들었다)에 빠지는 장면도 직접 소화했다.

입술에 립글로스를 바르며 도도하게 등장하는 현상은 사상성이 투철한 북한군 장교와는 거리가 먼 캐릭터다. 이 감독은 현상 캐릭터에 "전형성을 탈피한 언밸런스한 리듬감"을 심었다. 러시아 유학까지 다녀온 피아니스트지만, 군 장성 집안에 장가간 후 군인 신분이 된 현상의 뒤틀린 운명처럼 말이다.

남으로 향한 규남이 행복해졌을까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감독은 "젊은 세대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에 공감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의지로 해본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보는 분들이 각자의 결말을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 1면 '여배우 패션'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박준금의 별명은 '60대 (블랙핑크) 제니'다.

박준금 "요즘은 나이 그런 거 없다"

27년 동안 진행한 SBS 라디오 프로그램 '최화정의 파워타임'에서 최근 하차한 중견배우 최화정 역시 '옷 잘 입는 여배우'로 유명하다. 개인 인스타그램은 없지만 그는 이미 라디오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계정과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뽐낸 바 있다. 그녀의 장점은 작고 아담한 체구에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잘 연출한다는 점이다. 흑백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쓴 차림이나 허리를 잘록하게 강조한 뗑뗑이 무늬 스커트 차림은 귀여운 오드리 헵번을 연상시킨다. 라디오 하차 후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도전 중이다.

얼마 전 화제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출연했던 두 배우 이미숙(64), 나영희(63)도 '60대 패셔니스타'로 화제였다. 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실력파 배우 배종옥(60)은 최근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비법인 '레몬꿀팩'으로 홈쇼핑 시장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들은 모두 60대이지만 자기관리에 충실하고 확실한 개인 취향을 가진 배우들로 젊은층에서 인정받고 있다.

LVMH 그룹 내 최고 경영자 중 한 사람이었던 미레유 갈리아노는 자신의 저서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에서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프랑스 여자들의 비결을 묻는 말에 "마음가짐이 바로 묘약"이라며 "당당하게 나이 먹기"를 조언했다. 점점 더 젊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과거의 60대에 비해 훨씬 젊고 세련된 마인드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고금리, 집값 상승 등으로 지갑이 텅텅 빈 2030세대와는 달리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대다. 젊고 세련된 '나'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소비를 늘릴 준비와 욕구가 충분하다. 60대 여배우들의 젊어진 패션은 이렇게 달라진 세대 트렌드를 반영하는 증거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호주·사우디 피했지만… '침대축구'와 10번 싸워야

〈이라크·요르단·오만·팔레스타인·쿠웨이트〉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껄끄러운 상대를 피했다. 하지만 중동 팀들과의 대결을 줄줄이 앞두고 있어 '침대 축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식에서 B조에 포함됐다. 2차 예선을 통과한 18개국 중 FIFA랭킹 상위 3개 팀에게 주어지는 톱 시드를 확보한 한국은 C조의 일본(17위), A조의 이란(20위)과 함께 포트 1에 이름을 올렸다.

추첨 결과 한국은 이라크(55위), 요르단(68위), 오만(76위), 팔레스타인(95위), 쿠웨이트(137위) 등과 한 조에 묶였다. 일단 포트 2의 호주(23위)와 카타르(35위), 포트 3의 사우디아라비아(56위) 등 부담스러운 상대를 모두 피한 건 긍정적이다. B조에서 만나게 된 요르단은 지난 2월 AFC 아시안컵 본선 4강에서 한국에 치욕적인 패배를 안긴 상대지만, 객관적인 경기력에선 여전히 한국이 앞선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대 팀들이 중동 지역 국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과 문화, 그라운드 상태, 걸핏하면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에 이르기까지 경기장 안팎의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게 대표팀의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B조에 편성됐다. [AFC 유튜브 캡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개요

일정	2024년 9월~ 2025년 6월	진행	6개국씩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
경기 수	팀 당 10경기	순위	각 조 1·2위 6개 팀 본선행(6장)
참가국	2차 예선 통과한 18개국		각 조 3·4위 6개 팀은 4차 및 5차 예선 참가(2.5장)

일본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른바 '죽음의 조'에 묶였다. 아시안컵 2연패를 이룬 카타르, 중앙아시아의 복병 우즈베키스탄(62위)과 함께 경쟁하는 이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110위)은 이란과 함께 A조에 포함됐고, 한국인 신태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사상 처음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한 인도네시아(134위)는 일본과 함께 C조에 이름을 올렸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는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오는 9월 개막해 내년 6월까지 열린다. 2차 예선을 통과한 18개 팀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경쟁을 펼친다. 월드컵 본선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확대되며 아시아 몫의 본선 진출 티켓도 4.5장에서 8.5장으로 대폭 늘었다. 3차 예선 각 조 1·2위 6개 팀은 본선 출전권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3·4위 6개 팀은 남은 2.5장을 놓고 패자부활전(4차 및 5차 예선) 무대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란 등과 함께 아시아 톱클래스로 꼽히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지난 2월 전임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체제로 치른 AFC 아시안컵 본선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중도 탈락한 이후 4개월 넘게 내홍을 겪고 있다. 주축 멤버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을 중심으로 불거진 선수들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전술적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새 감독을 찾지 못해 대표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정해성 위원장이 이끄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이하 강화위)가 지난 3월과 이번 달 A매치에 앞서 새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한국 축구는 올해 치른 2차 예선 마지막 4경기를 서로 다른 두 명의 임시 감독(황선홍·김도훈) 체제로 마무리했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 국가들이 기존 감독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경험과 조직력을 다진 것과는 비교된다.

월드컵 본선 진출의 최종 관문인 아시아 3차 예선 대진이 완성된 만큼 새 감독을 중심으로 대표팀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상대 팀 전력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강화위가 최근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 후보로 내국인 1명, 외국인 3명 등 4명으로 범위를 좁혀 마지막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면서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지훈 기자

유로 16강 '미리 보는 결승'… 프랑스·벨기에 맞붙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4위 조지아가 6위 포르투갈을 완파하고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16강에 진출했다.

조지아는 27일(한국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대회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수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9·알나스르)가 이끄는 포르투갈은 2016년 대회 우승팀이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다. 반면 조지아는 이번이 유로 본선 첫 출전이었다. FIFA 랭킹도 출전국 중 가장 낮다.

이날 경기 전까지 1무 1패를 기록했던 조지아는 마지막 3차전을 이겨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대가 우승 후보 포르투갈이어서 승리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조지아는 예상을 깨고 전반 2분 '조지아 메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23·나폴리)의 선제 골로 앞서나갔고, 후반 12분 조르지 미카우타제(23·메스)가 쐐기 골을 터뜨리며 포르투갈을 무너뜨렸다.

미국 ESPN은 "FIFA 랭킹 68계단 아래인 조지아가 포르투갈을 이겼다. 역대 유로 대회에서 가장 큰 이변"이라고 전했다. 첫 승을 거둔 조지아(승점 4)는 F조 3위로 16강행 막차를 탔다. 같은 조의 튀르키예는 체코를 2-1로 물리쳤다. 포르투갈과 튀르키예가 나란히 2승 1패(승점 6)를 거뒀는데, 승자승 원칙으로 포르투갈이 조 1위가 됐다. 포르투갈은 앞서 2차전에서 튀르키예를 3-0으로 이겼다.

E조에선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가 1-1, 우크라이나와 벨기에가 0-0으로 비겼다. 4팀이 모두 승점 4(1승 1무 1패)로 동률을 이뤘다. 루마니아와 벨기에는 골 득실(+1)까지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루마니아(4골)가 벨기에(2골)에 앞서 조 1위가 됐다. 슬로바키아(골 득실 0), 우크라이나(골 득실 -2)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는 승점 4를 따고도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경기를 끝으로 유로 2024 16강 진출 팀이 확정됐다. 스위스(A조 2)는 30일 이탈리아(B조 2위)와 맞대결을 펼치고, 독일(A조 1위)은 덴마크(C조 2위)와 격돌한다.

FIFA 랭킹 2위 프랑스와 3위 벨기에의 16강전은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린다. 오스트리아와의 첫 경기에서 코뼈가 부러진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26·레알 마드리드)는 마스크를 쓰고 폴란드와의 3차전에 출전해 페널티킥 골을 터뜨렸다.

벨기에는 '황금 세대'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원 사령관' 케빈 더브라위너(33·맨체스터시티), '괴력 스트라이커(1m91㎝·103㎏)' 로멜루 루카쿠(31·AS로마), '거미손' 티보 쿠르투아(32·레알 마드리드) 등이 나선다.

피주영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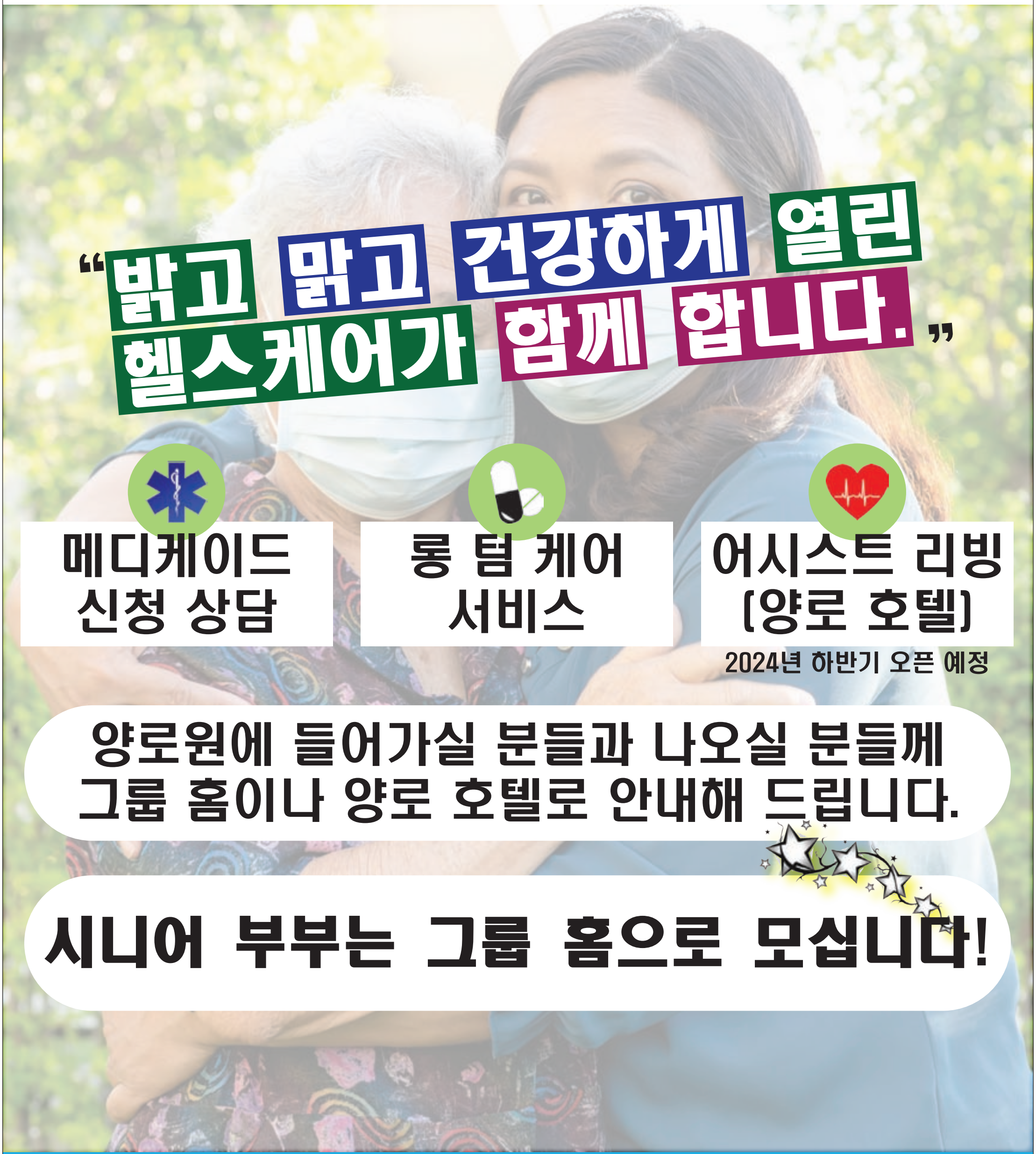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운동상해/직장상해 ◆ 청소년 성장클리닉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www.vaohc.com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6월 구인광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염가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줄광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줄광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 비지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 문의 :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Graphic Designer: Design graphics to meet specific commercial or promotional needs, such as packaging, displays, or logos. Use common designing programs such as CorelDRAW, QuarkXPress, VCarve Pro, and photoshops & Illustrators. 40 hours/week. Master in Design or Fine arts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HIZ Solution Inc dba HIZ Design & Print or HIZ Creative Design at 7535 Little River Tpke Suite 120C, Annandale, VA 22003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and Payroll Relie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40 hrs/week. Bachelor in accounting or Business Administration req'd. Send the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Michael W. Sim & Company, P.C. at 4605 Pinecrest Office Park Dr. Suite E, Alexandria, VA 22312.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온라인 세일 및 웹사이트관리자.
MD소재 식당장비 회사의 웹사이트 관리 및 온라인 세일 관리 도우실분. 재택근무. 파트타임 가능. 자기소개, 근무가능 시간 및 희망보수 이메일로 보재주세요.
571- 332-2101(문자)
edk.tre@gmail.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두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험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 (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 주 48 ~ 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에서 파트타임 케쉬어 구합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에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유무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스킨
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콘 저렴하게 판대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베네펫,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다. 월 - 금, 오후 3 PM - 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 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2, 유포 (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 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펙스 타운홈 $3,000. 방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욕실별도/세탁기 월 $640(유포)
대답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 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군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렌트〉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 바람
703-678-78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도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I-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근교 단독주택 $574,000
2.3에이커, Rambler, Ground Level, No HOA

단독주택 $526,000
방3, 화3, 차고1, 2000스퀘어, 2004년도

55+ 시니어 주택 $510,000
2024년도 신축, 방2, 화2, 차고1, HOA ($150)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571-232-6052

TTA 애난데일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차가,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2, 화지실2, 2층, Loft애난데일 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 방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아난데일 K마트뒤 싱글홈 방 하나, 주차 넉넉
703-965-2343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Woodstock, MD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유틸리티 포함(전기, 수도, 인터넷) 화장실/침대 구비 금연남성 환영
443 -983 -1880 문자 주세요.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에난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랜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에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쿼 비지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우표, 동전 오랫동안
수집했던것 팔고자 합니다.
240-723-511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터 / · 시간 :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 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 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 매매〉

무빙세일 역 이민 관계로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합니다.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571-232-6071(문자요망)

〈건축/페인트/마루〉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A HOME STAR CONSTRUCTION
리모델링, 에디션, 차고, 덱, 팬스
제너럴 컨트랙터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
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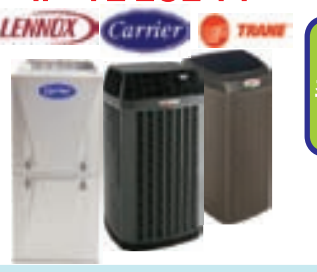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덱·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밍 써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RADON GAS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매매

급매 한국택배
FEDEX/ MAILBOX
AT&T/ SPECTRUM
11년간 운영, VALLEY 지역
트래픽/ 포텐셜 많은장소
가3만 (213)572-7977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격: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정원기구 수리/판매점
30년 한주인 운영, 싼가격
가든그로브 (714)788-4336

미용실-LA한타근처
가격:$4만(네고가능)
(818)288-3762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기타 지역

구인

쿡/쿡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라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주방장
숙식제공,죠지아주지역
(646)229-2708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리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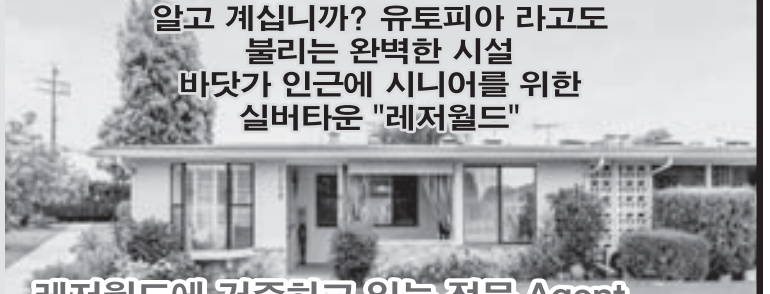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윤활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익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젠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휘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5분만에 100마일 충전가능 = 300kW

한인최초 미국 굴지의 EV충전소 제조 회사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 할수있습니다
문의: Jay Park Jaepark2000@ yahoo.com
213-605-1122, 714-822-7150
Sales Agent 모집중 (선착순 인원제한)
개인땅이나 건물주 연락 바랍니다

"상업용"

앞으로 법적으로 새 상가나 새 아파트에는 EV 충전소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EV 충전소 설치의 장점
1.내땅에서 전기 충전소 설치하면 24시간 수입 창출
2. 트래픽이 많아지고 기다리는 동안 수입 창출 3
3.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높은 Grant 를 받을 확률이 좋다
4. FBS 를 통해 설치 하면 공사비가 타 회사 대비 70% 절약 할수있다

"가정용"

12541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439,900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8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